

# 이화동창

동창의 날 행사 / 올해의 이화인 53인 추대 / 감사찬양예배 / 매듭장 김은영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2

10

36

# 이화동창

2018년 여름 제151호



##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48×64cm, 2004년)

<b>02</b>	<b>동창의 날 행사</b>	이화의 시작을 돌아보며, 이화의 내일로 나아가다
<b>10</b>	<b>2018 올해의 이화인</b>	안성희 동창 등 53인
<b>13</b>	<b>이화 창립 132주년 감사찬양예배</b>	이화여 모여라, 이화여 기도하자
<b>15</b>	<b>제7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b>	축제의 달 5월에 만나는 동심의 잔치
<b>19</b>	<b>총동창회 소식</b>	5월 이화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준비 외
<b>24</b>	<b>MESSIAH-발레로 만나는 메시아</b>	서정적이고 역동적인 감동, ‘경이로운 빛’을 담다
<b>26</b>	<b>축하합니다</b>	하정애 동창 외
<b>28</b>	<b>제3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인터뷰</b>	환기미술관관장 박미정 동창
<b>32</b>	<b>이화의 이곳저곳</b>	이대발달장애아동센터
<b>36</b>	<b>만나고 싶었습니다</b>	매듭장 김은영 동창
<b>41</b>	<b>모교 소식</b>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식 개최 외
<b>45</b>	<b>대학(원) 소식</b>	공과대학 외
<b>46</b>	<b>과(학부) 소식</b>	국어국문학과 외
<b>53</b>	<b>지회 소식</b>	남기주 지회 외
<b>63</b>	<b>동창 근황</b>	윤여선 동창 외
<b>72</b>	<b>동창이 펴낸 새 책</b>	『내 나이가 어때서』 외

##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이명실(영문 78,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박종분(중문 89)

정진숙(행정 89)

조성아(정외 89)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8년 여름 151호

발행 2018년 7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8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

## 이화의 시작을 돌아보며 이화의 내일로 나아가다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5월 31 일(목) 12시 종장 초대 오찬과 오후 2시 기념식으로 나뉘어 각각 학생식당과 대강당에서 치러졌다. 기념식은 1, 2부로 치러져 1부는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올해의 이화인’ 증서 전달, 재상봉 동창 기념품 전달 및 대표 인사, 모교 소식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행사로 53명의 ‘올해의 이화인’ 추대와 합창제, ‘올해의 이화인’을 위한 다과회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합창제 및 2부 행사는 여느 해와 다름없이 동창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리에 진행되어 이화인의 화합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한편 대강당 앞에 마

련된 동창회 기금 마련 기념품 판매대에도 동창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져 모교 발전에 대한 동창들의 관심을 보여 줬다. 청명하고 따뜻한 5월의 교정에서 선후배와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화인의 하나됨과 자부심을 되새기며 모교의 발전을 축하하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보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모교 이화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올해는 1968년(졸업 50주년)과 1988년(졸업 30주년)에 졸업한 동창들이 상봉하는 해로, 뷔페식



1, 2. 기념식과 오찬에 참석한 이화동창들 3. 동양화과 이미정 동창이 직접 만들어 선물한 우산을 들고 기념 촬영한 동양화과 동창들

오찬이 차려진 학생식당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창들로 북적였다. 총장 초대로 오찬에 참석한 동창들 간에는 자신의 학과에서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동기들을 축하하는 반가운 포옹과 격려가 오갔다. 이날 오찬 행사는 정준순(약학 72) 부회장의 개회사와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식전 기도로 시작되었다. 정준순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축하하며 모교에 초대받아 모처럼 오셨으니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배명신(경영 86) 동창은 “여러 걱정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교가 비상하는 일만 남았으니 앞으로는 이화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김은영(심리 88) 동창을 둘러싸고 축하 인사와 사진 촬영이 한창인 심리학과 모임에서 만난 한상은(심리 84) 동창은 “몇 년째 후배들을 맞이하는 동창회장으로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모교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학생 때는 갖지 못했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교심을 뒤늦게라도 갖게 된다”고 했다.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들도 동기들끼리 모여 앉아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다. 김하자(약학 68) 동창은 “오랜만에 학교에 와보니 시설도 몰라보게 좋아졌고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어서 정말 반가웠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진영선(문정 68) 동창은 “졸업하고 학교에 처음 와 봤는데, 졸업한 지 50년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채플이 열리던 강당에 다시 앉아 보니 옛날로 돌아간 듯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감회를 밝혔다. 16~17명의 동창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남재은(독문 68) 동창은 “오랜만에 전국 각지, 외국에서 온 친구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만남을 주선해 준 모교와 총동창회에 고맙고 이화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기뻐했다.

한편 ‘올해의 이화인’(1984년 입학, 1988년 졸업)으로 추대된 53명의 동창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분홍 치마에 흰 저고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학생식당 중앙에 마련된 자리에 모여 앉아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다.

김수연(교육 88) 동창은 2주 전 교통사고로 척추골절상을 당해 일어나 앉기도 힘들어서 외출은 생각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아픔을 참고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올해의 이화인’의 책무를 완수한 김동창이 자랑스러웠다. 윤혜신(기독 88) 동창은 “오늘같이 기쁘고 즐거운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추대되기까지 하여 너무 들떠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함정임(불문 88) 동창은 “1984년에 이화 교정을 밟았던 50여 개 학과의 동기들과 올해의 이화인으로 만난 이 자리가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보영(영교 88) 동창 역시 “올해의 이화인으로 뽑혀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의 삶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 같아 기대도 크다”며 “도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화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모두 힘쓰자”며 파이팅을 외쳤다.

대강당 앞에서는 식사를 마친 10여 명의 동창들이 패셔너블한 우산을 활짝 펴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동양화과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이미정(동양 88) 동창이 졸업 30주년을 맞은 동창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작품이 프린트된 우산을 선물했던 것. 이 동창은 “이 우산은 패션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것으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반응이 좋은 것을 골라 동기들에게 선물했다”고 소개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왼쪽)과 김혜숙 모교 총장(오른쪽)

## 이화 공동체를 지켜온 원동력과 정체성을 되새겨 보는 시간

오후 2시부터는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가 총동창회 주관으로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을 비롯, 윤후정 전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윤순희(교육 65)·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 고문,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동창과 졸업 50주년·30주년 재상봉 동창 및 그 친지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동창의 날 기념식과 2부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및 합창제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한숙영(제약 79) 총동창회 문화부장은 적절한 위트와 재치 있는 말솜씨로 1부 기념식과 2부 합창제를 매끄럽게 이끌어갔다.

기념식은 찬송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다같이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듯 이화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셨으니 혹시라도 이화가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려다 주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한숨과

갈등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친송과 축복의 소리들이 이화에 채워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드렸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이화는 수많은 여성 인재를 길러낸 한국 최초의 여성고등 교육기관이자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모교로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감내 해야 했으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화는 채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오늘 이화의 처음 시작을 돌아보며 창립 이래 이화 공동체를 지켜온 힘과 정체성을 되새겨 보고 앞으로 이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창 여러분과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어 “이화의 첫 번째 힘은 기독교 공동체 정신이고 또 다른 원동력은 여성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화 앞에 놓인 시련을 되새기며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첫 시작을 회복해 이웃과 사회에 교만하지 않고 사랑과 나눔, 봉사의 이화 정신을 지키자”고 말했다. 또한 “여성 지도자의 산실이자 한국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었던 여성 공동체로서 이화의 장점을 살려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이웃과 사

회, 국가에 봉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모교는 물론 이화동창 개인들도 힘껏 노력하고 모교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과 김혜숙 총장 모교 소식 전달

다음 순서로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빛나는 이화인’ 상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는 공공 교육 현장으로서의 미술관 운영을 통해 ‘예술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한국 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환기미술관 관장 박미정(조소 84) 동창과 다년간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빛나는 창작력을 발휘하였고 현재는 천연 기능성 화장품 ‘아이소이(isoi)’ 대표이사로서 여성의 건강과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진민(국문 86) 동창이 선정되었다. 이어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53명을 대표하여 원현미(작곡 88) 동창에게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수여했고,



1. 윤후정 전 명예총장 2.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3. 윤순희 총동창회 고문 4.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다음으로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재상봉 동창’ 기념품 전달 순서가 이어졌다. 졸업 50주년 대표 지순경(기악 68) 동창과 졸업 30주년 대표 안혜상(식영 88) 동창이 각각 나와 기념품을 받았고, 곧이어 재상봉 동창을 대표한 두 동창은 인사말을 통해 훌륭한 스승님들과 이화가 베풀어 준 소중한 기억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순경 동창은 인사말에서 “1960년대 말 안정되지 않은 격변의 시대에 이화를 다니면서 훌륭한 여성 지도자 김활란, 김옥길, 이태영 선생님들의 주도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당시 한국 음악을 대표했던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분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해마다 부활절 주일 새벽에 450여 명의 전 음대생들이 흰 한복을 입고 대강당 계단에 십자가 대형으로 서서 헨델의 <alleluia>를 합창한 것과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 동쪽 하늘에서 눈부시게 떠오르던 해를 가슴 벽차게 바라보았던 일은 제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귀한 경험이었다”고 감동어린 추억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창립 10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화 속에 우뚝 선 음악대학이 넓은 세계로 힘차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맺었다.

안혜상 동창은 “올해는 저의 졸업 30주년이자 지금의 남편인 당시 약혼자와 해 저문 이화 교정의 벤치에서 입맞춤을 한 지 30주년이 된 해이기도 하다”고 소개해 좌중의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5월 한 달 내내 축제 분위기였던 창립 100주년 행사, 1987년 6월의 잊지 못할 민주화 항쟁 등 행복했던 일, 가슴 아팠던



올해의 이화인 증서 전달

일, 흑독한 계절도 있었다”며 “지난 30년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우리 앞에 다가온 새로운 30년을 맞이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짧고 찬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재의 삶을 만끽하며, 20년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졸업 50주년 행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한다”는 소망의 말을 남겼다.

이어서 김혜숙 모교 총장이 나와 모교 소식과 인사말을 전했다. 김혜숙 총장은 먼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지적 탐색을 시도할 수 있도록 계열별 통합 선발 제도와 학부 성적 자율 평가 제도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생이 글로벌 교육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 유수 대학들의 경험과 학문을 상호 교류하는 방문교수제를 확보하고 이미 운영 중인 이화-하버드 아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EWHA-HCAP) 등을 모델로 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화 글로벌 리더와의 대화 프로그램 신설, 학생들이 세계 각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를 시작으로 이화인에 대한 폄하 및 명예훼손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갈수록 성장하는 대규모의 학교가 된 만큼 단과대학별 분권화 추진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조직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화의 고유 가치인 미래지향적인 여성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연구 중심대학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제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혜숙 총장은 “132년 이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화의 면모를 일신시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유성을 가진 이화를 만들기 위해 당면한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50주년 동창을 배출한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총동창회에 금일봉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 아름다운 화음을 뽐낸 합창제와 신나는 몸풀기로 축제 분위기 돋워

곧이어 졸업 30주년 동창들 가운데 각 과를 대표하여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53명의 동창

들이 국악 반주에 맞추어 대강당 중앙 무대로 입장하면서 2부 행사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와 합창제가 시작되었다. 신은경 모교 무용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올해의 이화인 추대 행사는 무대에 오른 올해의 이화인 53명을 각각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름이 불린 각 동창들이 일어나 감사인사를 할 때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소리가 더해져 축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이어서 김영희 모교 무용과 교수의 안무 지도로 임희영(무용 00) 동창의 흥겨운 부채춤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그다음 순서로 참석한 모든 동창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합창제가 열렸다. 한숙영 문화부장이 사회를 보고, 박소현(종음 99) 음악부장이 진행한 합창제는 올해 6팀이 참가해 저마다의 기량을 한껏 뽐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심사를 맡은 음악대학 성악과의 박신화·윤명자 교수와 한국음악과의 김선옥 교수가 소개되었다.

처음 출전한 팀은 2006년 창단해 꾸준히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 지회(지휘: 정계숙(성악 82), 반주: 권현아(피아노 96))로 <주 한 분만이>라는 CCM(대중적인 형식의 기독교음악)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해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다음



박미정·이진민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자, 지순경 50주년 졸업 대표와 안혜상 30주년 졸업 대표(왼쪽부터)

으로는 2016년 창단해 올해 첫 출전한 생활환경대(지휘:박미경(의직 76), 반주:이은경(가관 83)) 팀이 노란색 블라우스 차림으로 등장해 인기 대중가요인 <꽃밭에서>를 불러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노래가 끝날 무렵에는 손에 든 꽃을 높이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평균 나이 70~80대로 창립 멤버가 30년 넘게 여전히 활동 중인 법대(지휘:최양숙(법학 70), 반주:오정순(법학 72)) 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노래했다. 물피리 연주와 함께 전주를 시작한 법대 팀은 곡 중간중간 박자에 맞춰 리듬막대와 마라카스를 연주해 곡에 흥겨움을 더했다. 허밍으로 <고향의 봄>을 부르며 무대에 등장한 사범대(지휘:이명옥(영교 78), 반주:이아람(피아노 01)) 팀은 하이든의 <천지창조 13번>이라는 수준 높은 곡을 웅장한 하모니에 담아내어 합창제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다음은 화려한 반짝이 의상이 돋보였던 조형대(지휘:김아영(도예 04), 반주:김순미(공간디자인 89)) 팀의 무대로 흥겨운 리듬의 팝송 <댄싱퀸>에 맞춰 신나고 멋진 율동과 노래를

선보였다. 마지막 참가 팀은 태극선을 들고 등장한 약대(지휘:김소희(성악 01), 반주:신나래(건반 12)) 팀으로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빠른 템포의 장구와 팽과리 장단에 맞춰 태극선을 흔드는 퍼포먼스로 곡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이어 1986년 모교 100주년 특별연주회 기념으로 창단된 이래 꾸준히 외부 연주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대 학창단 이음회(대표:이선희(성악 76), 지휘:황선미(피아노 93), 반주:곽예림(건반 12))의 특별 출연 순서가 있었다. 이음회는 영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칼 젠킨스(Karl Jenkins)가 자연의 신비와 웅장함을 표현한 곡 <아디에무스(Adiemus)>를 탁월하고 세련된 하모니로 담아내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모교 체육학과의 김숙자 명예교수가 진행하는 ‘다함께 몸풀기’ 순서가 있었다. 김숙자 교수는 “건강하고 즐거운 몸풀기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제안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동창들은 물론, 무대 위에 꽂꽂이 앉아 있던 ‘올해의 이화인’



1. 몸풀기 행사 중인 김숙자 명예교수 2. 임희영 동창의 축하 공연



1. 대전 지회 합창단 2. 사범대 합창단 3. 생활환경대 합창단 4. 약대 합창단 5. 법대 합창단 6. 조형대 합창단

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신나는 음악에 맞춰 김숙자 교수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며 맘껏 몸을 움직였다. 동창들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 연신 함박웃음을 머금은 채 흥겨운 몸풀기 시간을 즐겼다.

이어 합창제 심사위원장 박신화 교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각 팀들의 실력이 발전하는 것 같다”

며 “여러 가지 상 중에 1등은 여러분이 추측하길 바란다”는 재치 있는 말과 함께 각 팀별 심사평과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오늘의 화음상(대전 지회), 아름다운상(생활환경대), 최고상(사범대), 대상(법대), 그랑프리(조형대), 이화상(약대) 등 각 팀들이 호명될 때마다 동창들은 축하의 박수로 기쁨을 함께 나눴다.

시상식이 끝난 뒤 다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모교 이화의 무궁한 발전과 비상을 염원하는 간절함을 담아 교가를 제창하며 다음번의 만남을 기약했고, 이어 ‘올해의 이화인’ 퇴장으로 모든 행사가 막을 내렸다. 동창들은 이진민 동창이 제공한 에코백과 마스크팩이 담긴 기념품을 받아들고 서로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눴다.

오후 4시 30분에는 총장 공관 뒤편에 마련된 ‘올해의 이화인’을 위한 다과회 자리로 이동해 보람 있고 뜻깊었던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음대 합창단 이음회의 특별공연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2018 올해의 이화인(1984년 입학, 1988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계재



안성희(국문)  
한국어교육 전문가,  
심리상담사



이주연(중문)  
(주)더조이플러스 대표



곽진영(영문)  
전국대 교수



함정임(불문)  
소설가,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숙(독문)  
헤드헌터,  
독문과 동창회 부회장



윤혜신(기독)  
작가, 요리연구가



이영주(철학)  
국제사이버대 특수상담  
심리치료학 교수



이혜경(정외)  
서울시의원,  
전 중구의원(5,6대)



김경주(행정)  
전주비전대 교수



계난경(문정)  
(주)동학식품 대표  
(미니멜츠 구슬아이스크림)



서수정(커미부)  
갤러리아 백화점 르브아  
베이커리 대표



정재선(사회)  
(주)한국리서치 사장, CEO



황미영(사복)  
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영(심리)  
동서울대 교수



양소혜(경제)  
전 경제학과 동창회장,  
전업주부



**김미성(수학)**

전업주부



**배주연(물리)**

(사)한국자원봉사문화지부  
어깨동무 이사



**이승은(화학)**

솔베이 코리아 연구소장(전무)  
수원대 공과대학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이은영(생명)**

수원대 공과대학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임미선(컴공)**

HSBC은행 부대표



**김진우(피아노)**

피아니스트



**류예행(관현)**

한국교회음악교육원 외래교수,  
오페라 연출가,  
베스트버디스 양상설 지휘자  
쉐마나라 컴퍼니 대표



**김재희(성악)**



**원현미(작곡)**

성결대 객원교수,  
작곡동인 텔로스 협회 회장



**오지영(종음)**

오르가ニ스트



**이미정(동양)**

동덕여대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김선정(서양)**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  
큐레이터



**이상미(섬예)**

작가,  
허그월드 사회지원회장,  
섬유예술과 동창회장



**김차현(생미)**

경희대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김필령(장미)**

THikit.com 부사장



**노혜신(도예)**

공주대 예술대학  
조형디자인학부 교수



**허주현(체육)**

우일운수(주) 대표



**최지연(무용)**

창무회 예술감독, 한국무용가



**김수연(교육)**

인천재능대 기획처장,  
WCC사업단장,  
유아교육과 교수



**정향림(유교)**

IBK참!좋은어린이집 원장



**송은경(초교)**  
서울미아초등학교 교감



**백승민(교공)**  
수원과학대 아동보육과  
초빙교수



**김은숙(특교)**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이보영(영교)**  
영어교육 전문가,  
(주)미소아 고문



**신동숙(외국어교육-불어)**  
(주)소정에프디 대표이사



**김선미(사회과교육)**  
국립순천대 교수



**이미경(과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윤(수교)**  
이화여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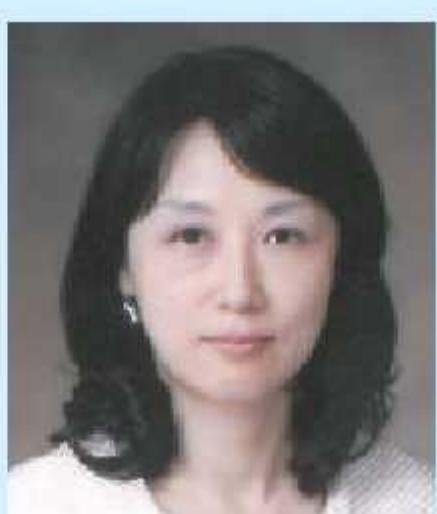
**장연희(융합보건)**  
전 영복여고 교사



**우라옥(법학)**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희선(경영)**  
(주)남양키친플라워 전무이사



**정성휘(국제사무)**  
인하공업전문대 비서과 교수



**이은화(간호)**  
이대목동병원 간호과장



**정병화(약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황경수(제약)**  
서울시 약사회 및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정지영(가관)**  
여주대 사회서비스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은(의직)**  
배화여대 패션산업학과 교수,  
산학협력처 단장



**김주현(식영)**  
동서울대 외식조리테크과 교수

## 이화여 모여라, 이화여 기도하자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將又大又難的事指示你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 미세로 통합적 선교부



5월 15일(화) 오후 2시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총동창회 선교부가 주관하는 ‘이화 창립 132주년 감사찬양예배’가 모교 대강당에서 1,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개최되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래,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김혜숙 모교 총장, 윤순희(교육 65)·김순영(약학 62) 총동창회 고문,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 등 모교 동창들을 비롯해 교수와 교직원, 이화기독교연합 회원 및 재학생들, 모교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치유의 하나님께 이화의 상처를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김민선(철학 05, 언어교육원 전임강사) 동창은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말로 예배 시작을 알렸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화가 회복되는 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으며 이화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이화를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하시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화에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라는 주제의 오프닝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었다. 배경음악으로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가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상영된 이 영상은 병자와 가난한 자, 약한 자 편에 서신 예수님의 생애와 그 후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그런 감동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감상하는 참석자들은 마음이 숙연해지는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곧바로 찬양과 예배(Praise & Worship) 순서가 이어졌다. 인도를 맡은 박지범 선교사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눠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찬양을 이끌었다.

참석자들은 박지범 선교사와 찬양팀 ‘Music For You(혼성 4중창단)’의 인도에 따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 발 앞에 무릎 끓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를 찬양하며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순서를 위해 바이올린에 이정은(관현 16)·최윤나(관현 16) 동창, 첼로에 진은애(관현 15) 동창, 플루트에 전혜현(관현 16) 동창, 피아노에 조민지(피아노 15) 동창이 반주를 맡아 주었다.

### 하나님이 이화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어진 무대는 새하얀 의상을 차려입고 등장한 강민지(무용 07)·이은미(무용 11) 동창의 현대무용 공연이었다.

공연자들은 가슴에 울림을 주는 곡 <You Raise Me Up>에 맞춰,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안아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의 된다’는 의미를 담은 무용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혼신의 연기를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다음으로 모교 음대 박신화(성악과) 교수의 지휘와 박소현(건반악기 전공) 교수의 오르간, 조민지 동창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송가 <이 믿음 더 옥 굳세라>를 부르는 순서가 이어졌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밝은 빛 인도

하여 주신다”라며 입을 모아 감사 찬양을 했다.

이어진 설교 순서에서는 신촌장로교회의 조동천 담임목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탕으로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조동천 목사는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있는 이화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교했다.

다음으로 한숙영(제약 79) 문화부장의 인도로 합심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이어졌다. 간절함을 담은 통성 기도 후에는 문영자(영문 67, 평양과기대 교수) 동창, 신동희(대학원 17 입학) 학생, 박성연(경영학) 교수, 문병인 이화의료원 원장이 각각 동창, 학생, 교직원, 의료 대표로 나와 이화를 위한 통회의 기도를 올렸다.

이어 조동천 목사의 축도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린 감사찬양예배는 끝이 났다.

예배 후에는 모교 김혜숙 총장이 인사말을 통해 “초창기 학교의 기틀을 다졌던 스승님들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이화를 만든 뿐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클로징 영상으로 해외 선교지를 찾아 선교 활동을 펼쳤던 이화기독교연합의 활약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감사찬양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제7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축제의 달 5월에 만나는 동심의 잔치



5월은 이화가족들에게 축제의 달이다. ‘이화’와 관련한 행사가 유독 많은 5월은 은사와 선후 배, 동기들의 안부를 챙기고, 녹음이 푸르른 이화 캠퍼스를 떠올리며, 그 속에서 지낸 학창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유난히 샘솟는 계절이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특히 젊은 동창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총동창회 주최 행사이다. 오랜만에 캠퍼스에서 친구를 만나 안부를 묻고, 가족들과 즐거운 소풍을 겸할 수 있으니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만으로도 즐거운 것. 이번 대회가 열린 5월 12일(토)은 오전부터 바람이 불고 굵은 장대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미리 등록한 유치부 102명, 초등부 132명 총 234명의 어린이와 이화 가족의 불참율이 채 5%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행사에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 이화가족 봄날의 잔치

대강당 로비 접수대에는 행사 시작인 10시 이전부터 접수를 하러 오는 이화가족들이 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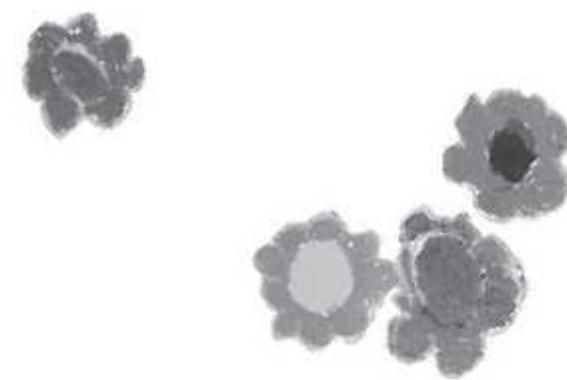


지었다. 첫 번째 참가자는 파주에서 온 신서윤(초등부)·신서진(유치부) 어린이와 정용순(문정 00) 동창 가족. 정동창은 “두 번째 참가인데 과 친구 둘도 여기서 만날 예정이에요. 아이도 설레지만 저도 친구 만날 생각에 설레서 일찍 출발했어요”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방마리(초등부) 어린이와 손혜진(심리 03) 동창은 “아이가 이 대회에 세 번 참가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인지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날씨에 개의치 않고 왔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등장한 민규원(초등부) 어린이는 깜찍한 베레모를 쓰고 꼬마 화가처럼 의젓한 모습이었다. 엄마 이정수(정외 98) 동창은 “올해 첫 참가예요. 대구에서 오로지 이 행사에 참가하려고 하루 전날 올라왔어요. 그림도 그림이지만 아이에게 제가 졸업한 학교를 보여 주고 싶었어요”라고 즐거워했다.

과 동기는 물론 사회에서 만난 이화동창과 함께 참여한 가족도 눈에 띄었다. 반예현(초등부) 어린이와 윤혜진(서양 97) 동창은 “아이 학교 친구 엄마 중 이화동창이 셋이나 있어 함께 참가했어요. 동창들과 함께해서 더욱 좋네요”라며 이번 행사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회과교육 2004년 졸업자 세 명과 다른 이화동창이 뭉친 팀도 있었다. 전성주(초등부)·전서진(초등부) 어린이와 장신영(사회과교육 04) 동창, 유준선(유치부) 어린이와 장경아(사회과교육 04) 동창, 김유현(초등부) 어린이와 이인경(사회과교육 04) 동창과 박희영(초등부) 어린이와 유미정(수교 05) 동창이 그 주인공이다.



1. 어린이들의 작품을 심사하고 있는 심사위원들
2. 김영주 총동창회장
3. 심사위원장 우순옥 동창



대가족이 출동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남호현(초등부)·남재현(유치부) 어린이와 김민경(중문 05) 동창 가족, 서지아(초등부)·서지민(유치부) 어린이와 이영주(물리 00) 동창 가족은 할머니, 엄마, 아빠 대가족이 든든한 응원군으로 동행했다. 박혜린(초등부)·박혜윤(유치부) 어린이와 엄마 유경진(약학 03) 동창은 할머니 신희경(교대원 73) 동창과 함께했다. 서예슬(유치부) 어린이는 엄마 박연경(초교 02) 동창과 할머니 유신자(영문 75) 동창, 할아버지까지 가족 소풍을 겸한 나들이를 했다며 즐거워했다. 성준영(유치부) 어린이의 엄마 이윤주(사회과교육 02) 동창은 권현서(초등부) 어린이의 엄마 이영임(경영 05) 동창과 자매 사이이다. 이화라는 이름으로 뭉친 돈독한 동창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 비 오는 날에도 동심의 순수함은 그대로

이번 대회의 주제는 ‘봄 소풍’. 날씨가 좋다면 이화 캠퍼스 어디서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어렵게도 이날은 비 때문에 대강당 2층과 3층 복도, ECC 지하 4층 등으로 장소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는지 봄 소풍이라는 주제를 도화지에 펼쳐내는 솜씨가 막힘없어 보였다. 12시까지 그림 제출을 끝낸 아이들은 총동창회에서 제공한 도시락을 들거나 집에서 싸온 음식을 먹은



1. 어린이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풍선 아트 코너 2. 총동창회에서 제공한 도시락 3. 모나미 크레파스 4. 선물세트

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대강당을 구경하거나 풍선 아트 코너에서 마음에 드는 풍선을 만들며 신나 하는 모습이었다. 장소는 다소 협소했지만, 아이들의 동심은 날씨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듯했다.

2시부터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사회로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심사위원장인 모교 조형대 교수 우순옥(서양 81) 동창, 모교 유아교육과 교수 홍용희(유교 78) 동창, 전 이대부속초등학교 미술교사 안지영(섬예 02) 동창을 비롯한 심사위원 및 총동창회 임원진, 그리고 이화가족이 참석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비 오는 날 그림 그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어린이들을 치하하며 “날씨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린 어린이와 그 가족들께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심사위원장 우순옥 동창은 “오늘처럼 궂은 날,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린 순수한 동심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며 “모두의 솜씨가 뛰어나서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상은 부문별로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4회 대회 때부터 참가한 어린이 모두에게 상을 수여하기로 한 총동창회는 올해도 ‘표현력이 뛰어난 상’, ‘창의성이 돋보이는 상’, ‘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즐거움이 가득한 상’, ‘공간감이 좋은 상’을 유치부와 초등부 부문에서 각각 5명, 총 50명의 어린이에게 수여했고, 부문별 상을 받지 못한 어린이 전원에게 ‘행복가득상’을 수여해 참가한 어린이 모두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즐기도록 배려했다.

이 행사를 위해 (주)모나미에서는 어린이 문구 선물세트 50점, 36색 크레파스 200점을, (주)크라운해태제과에서는 과자를 협찬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 5월 이화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준비

2018년 4월 정기 임원회가 4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총 42명 중 참석 31명, 위임 6명, 불참 5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렸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620장을 부른 후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로 2018년 4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하였다. 한미경(물리 88) 서기의 3월 정기 임원회 회의록 낭독, 정영출(경영 72) 회계의 3월분 회계 보고가 이어진 뒤 각 부 및 대학 보고가 있었고 행사 평가가 이어졌다.

배혜화(불문 77) 지역부장은 플로어에 마이크가 전달되지 않아 질문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장내가 혼란스러웠던 점을 지적하며 정기총회 행사 진행이 미숙했다고 아쉬워했다. 김순영(약학 62) 고문은 대회의실의 마이크 시설을 수리했음에도 기능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무선 마이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김정숙(디대원 93) 디자인대학원 회장이 장학금 수여식을 먼저 진행하고 학생들을 퇴장시킨 후 총회를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하자,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대학원 학생들이지만 올해 2월과 작년 8월에 졸업한 졸업생으로 신입 동창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임을 설명했고, 정준순(약학 72) 부회장은 “찬·반 의견을 주고받는 총동창회의

회의 진행 과정을 신입 동창들에게 보여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4월 26일(목) 오후 12시 열리는 ‘각 과(학부), 대학(원), 지회장 초청 간담회’를 공지하며, “그날은 5월 동창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회의인 만큼 각 과 회장들이 꼭 참석하길 바라며 부득이 불참할 시 대리 참석자가 졸업 30·50주년 스티커를 가져가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자 서류는 20일(금)에, ‘올해의 이화인’ 추대자 서류는 26일(목)에 마감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의 일정을 고려하고 해외 체류 등 변수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천 마감일을 2월로 앞당긴다고 공지하였다.

한편 5월에 치르는 이화의 다양한 행사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 우선 5월 12일(토) 10시에 열리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현재 24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예년과 동일하게 수상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지만 참가상을 먼저 시상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미(섬예 88) 조형대 부회장이 심사위원 중에 조형대 소속 교수가 있는지 질문하자,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심사위원은 조형대 교수 1명, 유아교육과 교수 1명, 초등학교 미술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심사위

원장은 항상 조형대 교수가 맡아 심사평과 소감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혜옥 선교부장이 5월 15일(화)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리는 ‘감사찬양예배’에 대해 공지했다. 성 선교부장은 “아픈 이화의 회복을 위해 함께 모여 회개와 감사,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모교 음대 박신화 교수의 지휘로 객석을 무대 삼아 함께 찬양을 올릴 것”이라고 말한 뒤 현재 SNS로도 홍보 중이니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동창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부탁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찬양곡의 악보를 이미 나눠드렸으니 보다 많은 동창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5월 26일(토) 대강당에서 열리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 티켓은 2만 원과 1만 원(정가는 3만 원과 2만 원)으로 차등을 두었다고 설명했고, 5월 31일(목) ‘동창의 날’ 행사는 5월 정기 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각 과(학부), 대학(원),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

4월 26일(목) 오후 1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약 80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과(학부), 대학(원),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명실(영문 78)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동창회는 2018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화동창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즐긴 뒤 자기소개의 시간을 갖고, 나이와 기수를 뛰어넘어 졸업 후 각자의 일에 매진하고 있는 동창들의 근황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2018년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매년 동창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이화는 감사찬양예배를 올리는 전통이 있는데 올해는 여느 때보다 더 크게 이화가족 감사찬양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성혜옥 선교부장에게 부연 설명을 부탁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5월 15일(화)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화가족 감사찬양예배의 주제는 ‘이화여 모여라, 이화여 기도하자’라고 소개한 뒤 “이화의 고난을 아파하는 동창들 및 이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재학 시절 우리가 기도와 헌신을 드렸던 대강당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는 하나님이 이화를 낚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이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은 동창들과 함께 가질 예정이니 SNS를 통해 이 행사를 널리 알려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날은 참석자들 모두가 합창단이 되어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찬송가를 부



를 예정이니 준비해 둔 악보를 꼭 가져가 미리 연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5월 31일(목)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50주년·30주년 졸업자들에게 나눠줄 스티커를 꼭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으며, 당일 식당이 매우 혼잡하니 소임을 맡은 동창들은 차질 없이 안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과 건의 시간에 “올해의 이화인 입·퇴장 시 음악이 현대적이지 않고, 한복을 입는 것이 어색하고 실용적이지 않다”며 ‘올해의 이화인’ 행사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동창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총동창회가 되라는 의미에서 내주신 의견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 뒤 “입장 음악 등은 여러분께 자문을 구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하고, 이어 “올해의 이화인 당사자들도 처음에는 한복을 입는 것을 어색해 하다가 나중에는 대부분 만족한다”며 “그날의 주인공인 올해의 이화인이 캠퍼스 어디에 있어도 눈에 띠는 복장이 한복이며, 오랜 전통이 있는 복장을 당장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창들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뒤 함께 사진을 찍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 감사찬양예배 등 세부사항 논의

5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5월 정기 임원회가 열렸다.

이명실 총무가 참석 27명, 위임 9명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337장을 부른 후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로 5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했다. 한미경 서기가 4월 정기 임원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정영출 회계가 4월분 회계 보고를 하여 각각 동의와 재정으로 통과되었다.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4월 26일(목) 간담회 평가를 시작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의 이화인의 복장에 대해 한복 대신 가운이나 정장으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말한 뒤 “여러 가지로 검토했으나 좋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의 이화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대부분 긍정적이라 올해도 한복을 입

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올해의 이화인들의 입·퇴장 시 안무 지휘를 모교 무용과 신은경 교수가 맡기로 했으며 보다 경쾌한 한국음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5월 12일(토) 열리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24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한다고 말하고, 수상자와 참가자 전원에게 차등 없이 동일한 상장을 수여하며 참가 상에는 모나미 크레파스, 본상 수상자에게는 모나미 문구 세트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김밥, 샌드위치, 물 이외에 크라운제과에서 협찬받은 과자를 포함한 도시락을 나눠 준다고 설명했다. 우천 시 행사는 대강당에서 진행하며, 임원들은 오전 9시까지 대강당 앞에 모여 배부한 업무 분담표에 따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5월 15일(화) 열리는 ‘감사찬양예배’는 오

후 2시부터 시작하며 참석자들은 흰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를 입고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리 공지한 두 곡 중 찬송가 620장만 함께 찬양하고 곡의 난이도상 헨델의 <alleluia>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1시부터 모교 음대 박신화 교수가 지도하는 합창 연습이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 임원들은 상반기 총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인 5월 31일(목) ‘동창의 날’ 행사를 다시 점검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1968년도 졸업한 동창들이 졸업 50주년이 되며, 1988년도 졸업한 동창들이 졸업 30주년이 됨을 안내했고, 50주년 대표는 음대 동창이, 30주년 대표는 생활환경대 동창이 맡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 수여할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로

환기미술관 관장 박미정(조소 84) 동창과 아이소이 화장품 대표 이진민(국문 86) 동창이 선정됐다고 알렸다. 임원들에게는 12시 학생식당에서의 오찬 행사와 2시 대강당에서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업무 분담표를 참조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황정인(컴공 90) 정보통신부장이 식당 자리 안내 시 풋말을 세워 미리 선점하는 대학이 있어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미리 자리를 선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각 대학 회장들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의 이화인’들의 부케를 실비만 받고 재능 기부로 만들어 줄 동창을 수소문했고, 이에 김경민(정책대학원 16) 정책과학대학원 회장이 알아보기로 했다.

## 동창의 날 기념식 평가 등 5월 행사에 대한 평가

총동창회는 6월 14일(목) 오전 11시 한식당 지화자에서 참석 20명, 위임 16명, 불참 6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6월 정기 임원회를 개최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470장을 부른 후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로 2018년 6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했다. 이어 한미경 서기의 전회의록 낭독, 정영출 회계의 회계 보고가 동의와 재정을 받아 통과되었다.

이날은 5월에 치른 다양한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우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5월 12일(토)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평가 시간을 갖고, 안내장에 뜻자리를 지참하라는 설명이 빠져서 일부 참가자의 항의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꼭 미리 공지할 것을 당부했다.

최인순(의직 79) 생활환경대학 회장이 “그림 제

출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김영주 회장은 “등수를 결정짓는 대회가 아니라 동창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행사인 만큼 큰 실수가 아니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5월 15일(화)에 열린 선교부 주최 ‘감사 찬양예배’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감사와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순영 고문은 “특히 성혜옥 선교부장과 한숙영 문화부장의 기도가 무척 감동적이었으며, 참석한 동창들이 흰색 상의를 통일되게 입고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주변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말했다. 김영주 회장은 “참석자들이 박신화 교수의 지휘에 맞춰 합창하는 모습이 무척 좋았다”며 “강남 유명 교회 성가대가 온 줄 알았다고 말하는 동창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교부에서는 5월 26일(토) 대강당에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도 주최했는데 이 공연 역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군무를 맡은 재학생들은 입학 후 이 공연에 합류해 처음으로 동작을 시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발레단장인 신은경 교수는 해마다 새로운 안무를 가르치고 공연을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다”며 “고난이도의 동작이 많아서 출연자들의 부상이 잦은 편인데 올해도 군무를 하는 학생 하나가 허리 부상으로 고생했다”며 출연자들의 애로와 깊은 신앙심을 전했다.

이어 5월 31일(목)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김광옥(식영 75) 부회장은 “졸업 50주년 동창석 안내 표지를 찾기 어려워하는 동창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의 이화인들이 한복과 부케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한복 제작을 맡은 이나경(서양 77) 동창과 부케를 만들어 준 정은주(생명 96) 동창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9월 13일(목)에 열릴 ‘대바자회’ 일정을 공지하며 각 과에서 판매할 물품 목록은 8월 1일(수)부터 25일(토)까지 제출하고, 동일 품목의 반복을 막기 위해 선착순으로 결정한다고 알렸다.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정기 임원회는 9월의 경우 6일(첫 번째 목요일)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하고, 매년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하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자 서류를 8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13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총동창회에서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 봉사의 이화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널리 세상에 알려 시대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11월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1,000만 원
- **수상 후보** 사회복지, 의료, 법률, 종교,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10년 이상 나눔과 섬김, 봉사의 정신을 실천한 동창(정회원, 준회원)
- **추천인 자격** 각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 및 해외 지회장, 전문직 동창클럽 회장, 동창 100인 이상(연명 날인)
- **구비 서류** 후보자 추천서 1통 / 추천 사유 및 후보자 업적사항 진술서 1통(본회 소정양식)  
후보자 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1장 포함) / 후보자 업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타 필요 서류
- **접수 기간** 2018년 8월 20일(월)~24일(금) ※우편 접수는 8월 24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우 03760)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주요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적이고 역동적인 감격, ‘경이로운 빛’을 담다



한여름이 성큼 느껴질 만큼 햅볕 따가운 5월 26일(토) 오후 3시 대강당 앞은 아주 특별한 발레 공연을 보러 나온 인파로 진작부터 불비고 있었다. 공연은 4시와 7시 30분 두 차례. 올해로 14번째인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가 대강당 무대에 올려질 참이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여유 있게 도착한 관객들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삼삼오오 얼굴을 맞대며 정담을 나누었고, 이들의 도란거림은 대강당 외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만큼이나 싱그러웠다. 공연 〈메시아〉에 거는 관객의 기대와 설렘도 한껏 높았다.

### 〈메시아〉에 거는 기대와 설렘

인천에서 왔다는 수녀님은 “소문으로 들었고 지금으로부터 추천도 받아서 언젠가 봐야지 하고 기회를 벼르고 있던 참에 왔다”하였고, 동행한 관객은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가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라며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이화여고 63회 동기 4명이 같이 왔다는 관객이 “공연이 있을 때마다 옵니다. 봐도 봐도 지겹지 않아요.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영원한 테마이기도 하고요. 핸델 음악도 좋고요”라고 말하자, 일행은 “친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얼마나 재미 있을지 기대된다”고 했다.

영등포에서 온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조카며느리의 공연을 보러 왔다며 막달라 마리아 역의 발레리나가 조카며느리라고 살짝 귀띔했다. 친구, 사돈댁 친지까지 포함해 열 명이 넘는 일행이었다.

1층 앞쪽 좌석에서는 산본에 산다는 한 중년 남성 관객을 만났는데, 혼자였다. 국민일보에 들렸다가 뒤늦게 홍보물을 보고서 부랴부랴 왔다고. 이런 공연 관객은 종종 있는 일, 취미란다.

금란여고를 졸업한 한 관객은 대강당이 추억의 장소라고 했다. “채플을 대강당에서 했거든요. 추억도 짚어볼 겸 왔어요.”

### 1막 예수의 탄생부터 2막 부활까지

공연이 시작되었다. 무대는 깜깜한 한밤중. 어둠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자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환희의 춤을 추었다. 이때 울려퍼진 핸델의 메시아 No. 12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네〉, No. 39 〈할렐루야〉 못지않게 유명한 합창곡이다. 제1막 1장에서부터 몰려오는 눈 귀 호강이다.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생애 속에서 믿음과 사랑, 고난과 희망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창작 발레 공연이다. 2003년 12월 6일 초연된 이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만,

큰 틀은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하기까지 삶의 여정이다. 올해 공연은 2막 1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막 예수의 탄생 예언을 시작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예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영생을 이야기하는 예수, 길잃은 양같이 헤매는 남녀들의 방탕한 모습, 병자를 고쳐 주는 예수, 음행한 여인에 용서를 베풀는 예수, 제자와 최후의 식사 시간을 갖는 예수, 예수 체포를 모의하는 배척자들과 탄식하는 예수,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 유다의 배반과 최후가 올려졌다. 2막은 예수를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 재판에 앞서 고뇌하는 빌라도, 로마군에게 희롱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예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 부활하는 예수, 갈릴리 바닷가를 다시 찾아와 어부들의 그물을 가득 채우는 예수, 용서받고 충성을 다짐하는 베드로,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찬양이 이어졌다. 무언의 발레극인데도 장면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고통과 기쁨에 찬대사가 절절히 들려오는 듯하다.

### 어두운 밤에 왜 별은 빛날까

음악은 핸델의 메시아를 토대로 각 장면마다 코프랜드, 린스키 코르사코프, 쇼스타코비치, 바흐,

번스타인, 베를리오즈, 모차르트, 멘델스존의 음악이 두루 사용되었다. 역시 대미는 핸델의 메시아 No.39 <alleluia>. 오래 참았다는 듯 웅장하게 터져 나오는 합창 음악에 맞추어 모든 발레리나가 나와 군무를 출 때 감동은 절정에 달했다. 고통 속에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영광으로 여겨지는 역설의 감격이랄까,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종교적 차원을 뛰어넘는 ‘구원’이 아닌가.

출연 발레리나는 모두 모교 무용과 발레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인 이화발레앙상블(1992년 창단)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공연계 또는 교육계에서 활발히 클래식 발레 공연 활동을 하고 있음은 물론, 현대창작발레에서도 늘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선보이고 있다. 이화발레앙상블과 함께하는 공연 <메시아>의 단장은 신은경(무용과) 교수. “공연 횟수를 늘릴 때마다 매번 어떻게 표현하면 더 나은 내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올해 공연에서는 ‘어두운 밤에 별은 왜 빛날까’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힘들고 아픈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삶을 통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경이로운 빛을 가슴 가득 느끼며 메시아, 그 별을 만나길 바랍니다.”

초연 때부터 안무와 예술감독을 맡아오고 있는 신 교수의 말처럼, 공연 관람이 끝난 뒤에도 ‘경이로운 빛’을 가슴에 가득 받아든 관객들의 감동은 쉬이 가시지 않은 눈치였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괴로워할 때, 예수가 베드로를 안아 주며 용서할 때 가슴이 찡.” “의상 정말 이쁘지 않아?” “손발에 못이 박히는데, 나도 모르게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소리가 절로 나더라.” “잘한다.”

글·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 하정애(무용 67) 동창 **국립현대무용단 비상임 이사장 임명**

5월 18일(금) 하정애 동창이 재단법인 국립현대무용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하정애 동창은 신라대 명예교수이며, 한국현대무용진흥회 부이사장, 하야로비 현대 무용단 예술감독,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한국예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소경(의학 76) 동창 **제4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수상**

3월 31일(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인성교육&교육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인성교육 대상을 수상하였다. 박소경 동창은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계명대 의과대학 교수와 호산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호산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인성교육 대상 주천위원회와 한국교육신문연합회가 주최하고 뉴스에듀신문사와 나비미디어 등이 주관했다.



## 윤현봉(사회 82) 동창 **주 브루나이 대사 임명**

5월 4일(금)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주 브루나이 대사로 임명되었다. 윤현봉 동창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 유희원(제약 87) 동창 **부광약품 단독 대표 취임**

3월 16일(금) 열린 부광약품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부광약품의 단독 대표로 결정되었다. 유희원 동창은 국내 제약사 최초의 여성 전문경영인으로 1999년 부광약품에 입사해 연구개발 분야를 맡아 왔으며, 2015년 부광약품의 공동 대표로 선임되었다.



## 하은희(의학 87) 동창 **환경의 날 '국민포장' 수상**

6월 5일(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한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하은희 동창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하 동창은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 등 취약계층 건강 영향 조사를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국민포장을 받았다.

하 동창은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환교수, 모교 연구처 부처장 및 의과대학 교학부장, 서울근로자건강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 신동금(교공 90) 동창 **한국씨티은행 집행간부 부행장 선임**

신동금 동창이 4월 1일(일)자로 한국씨티은행 집행간부 부행장으로 임명되었다. 1992년 모토로라코리아 교수설계 담당자로 경력을 시작한 신 동창은 1999년에 한국씨티은행 인재개발 부장으로 입사했으며, 이후 인사부장과 인사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인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아왔다.



### 김현희(사복 95) 동창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이대목동병원 사회사업과 계장으로 근무 중인 김현희 동창이 4월 5일(목) 제주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동창은 23년간 의료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특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취약 계층의 의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이수은(한음 02) 동창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5월 17일(목) 충북 영동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열린 제44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모교 겸임교수인 이수은 동창은 섬세하고 기교 높은 가야금 연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영동군과 난계기념사업회가 난계 박연 선생의 국악 얼을 잊고 우수 국악인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고 있다.

## 2018 교사 임용 합격자 역대 최다 배출, 주요 지역 수석 및 차석 차지

2018학년도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서 이화동창 324명이 최종 합격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등 주요 지역에서 부문별 수석 및 차석을 차지하며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모교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역별 수석 및 차석의 영광을 안은 동창은 다음과 같다. 서울 지역 초등 특수교육 수석에 이은별(특교 15) 동창, 유아 특수교육 수석에 전예은(특교 18) 동창, 차석에 박채현(특교 18) 동창이 영예를 안았다. 또한 김지예(과교 17) 동창이 서울 지역 화학교육 수석, 박윤아(특교 15) 동창이 유아교육 차석을 기록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최사랑(과교 18) 동창이 지구과학교육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 지역에서는 임예지(중문 17) 동창이 중국어교육 부문 수석을 차지하였고, 음악교육 부문은 민지혜(피아노 14) 동창이 수석, 권하영(한음 12) 동창이 차석을 휩쓸었으며, 조윤주(수교 15) 동창이 수학교육 차석, 유한미(교대원 16) 동창이 미술교육 차석을 차지했다. 안성원(도예 10) 동창은 충북 지역에서 미술교육 부문 수석으로 합격했다.

### 제3회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자 인터뷰

환기미술관 관장 박미정(조소 84) 동창

##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나 같아지지는 않으려고요”



청와대 뒤편 자하문 고개를 넘는다. 인왕산과 북악이 살포시 만나는 조붓한 골짜기 에 가만하게 내려앉은 부암동. 골목의 망중한을, 짐짓 뒷짐 지고 기웃거리며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누리는 재미가 쏠쏠 하다. 시선을 끄는 부암동의 개성 만점 공간 중에서도 환기미술관은 맑이 격.

환기미술관이 건립된 것은 1992년. 환기미술관을 건립한 환기재단이 태동된 것은 작가 김환기(1913~1974)가 작고한 이듬해인 1975년(1979년 미국 뉴욕 주에서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등록하고 1989년 서울로 이전)이다. 작가 김환기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유명 화가. 소략하자면 한국 근현대 추상미술계의 독보적 존재이다. 올해 5월에는 그의 작품 ‘붉은 점화’가 한국 미술품 최고 경매 가(85억 원)에 낙찰되어 한 차례 더 주목받았다. 이로써 국내 최고 경매가 미술품 10점 중 8점이, 상위 6점 모두가 김환기 작가 차지가 되었다. 예술품을 값으로 따져 매기다니 경망스럽다는 타박에도 불구하고 ‘김환

기의 라이벌은 김환기’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틀린 말이 아니다. 2018년 제3회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한 박미정(조소 84) 동창이 이곳 환기미술관의 관장이다.

### ‘이화’와 ‘환기’와 ‘나’

박미정 동창은 모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1984년에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조형예술학 박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1999년부터 모교 강의와 환기미술관 학예실장을 맡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환기미술관 관장직을 맡은 것이 2004년이니, 박미정 동창에게는 ‘이화’와 ‘환기’가 거의 전부인 셈이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오빠와 덕수궁에서 김환기 그림을 처음 보았어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라는 제목이 붙은 파란 점화였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김광섭의 시를 찾아 외웠지요.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일 거예요.”

김환기로 일찍이 그림과 시를 만나면서 예술에 눈 뜬 박미정 동창이 이화를 만난 것은

부모의 권유 때문이었다. “이화에 입학한 뒤로도 남녀 공학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1학년 때 서울대 수업을 청강하면서 남녀 공학을 경험해보니 역시 이화의 장점이 뚜렷한 것을 알겠더군요,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이란 것이 있다면, 이화는 두 가지 모두, 아니 성 역할에 경계 없는 자기 주도적 활동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이화의 가치가 빛나는 지점입니다. 이화 선배 중에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 많아요. 김향안(이화여전 영문과, 김환기의 부인) 환기미술관 설립자가 바로 우리 선배입니다.”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 소감을 묻자 박미정 동창은 “학교에서는 이화 정신과 선배들의 훌륭한 행보를 본받아 배웠고, 직장에서는 미술관 설립 정신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모교와 미술관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그리고 살며시 얹는 자신의 마음. 화이부동(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기!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해가며 대부분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관대하지가 못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최선을 다해 모든 이와 화합하려고 늘 노력하는 중에도 나의 본질이랄까 개성을 지켜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가훈을 물어보는데 주저 없이 ‘화이부동’이라 했지요.”

### 선배들에게 배우다. 곧게 때론 휘어지게

박미정 동창이 환기미술관과 인연을 맺은 계기는 이화 선배의 소개였다. “파리와 뉴욕에서 생활하며 예술적 분위기를 경험한 김향안 설립자는 이를 공유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당시 결혼해서 만삭이었고, 강의도 시작해서 직장을 구할 여력은 없지만 소개를 받았으니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 생각해 찾아봤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니 ‘아이도 키우고, 결혼 생활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잠깐씩 나와서 일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후로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사람을 잘 끌어당길 줄 아는 분이지요?”

박미정 동창이 파리에서 쓴 박사 논문의 주제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 1970), 추상표현



주의 작가). 작가 김환기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도 마크 로스코였다.

“김환기, 김향안 두 분은 ‘예술 정신은 시(詩) 정신’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에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인연으로 관계를 맺지만 그중에서도 정서적인 공감으로 뭉친 관계는 정말 깊고 깊어요. 예술 정신에 공감하니 환기미술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미술관 현장 활동만 20년. 세상에 선보인 전시는 열주 100여 회가 넘고, 만난 작가는 700여 명이 넘는다. 환기미술관의 설립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박미정 동창이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셋이다. 첫째,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출판과 전시로 김환기 작가의 예술 세계를 세상에 알리기, 둘째, 작가의 사유와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 셋째, 사회적으로 문화 예술 체험 나누기.

### 예술은 시(詩) 정신!

“남편의 작고 후 곧바로 ‘환기’라는 이름을 걸고 비영리법인 재단 활동을 시작한 김향안 설립자는 김환기 작가의 작품을 외국의 유명 미술관에 기증하는 한편 젊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도왔어요. 한국 작가만 아니라 외국 작가도요. 1970년대의 한국 현실과 위상을 생각하면 시대를 앞서간 대담한 아이디어예요. 교포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영어 에세이 대회도 열었는데, 출전 인원이 미미하고 효과도 검증할 수 없다며 비용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잘되면 왜 하겠냐. 생각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행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미정 동창은 쭈뼛쭈뼛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고 한다. ‘프리 환기(Prix Whanki)’는 작가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고 발표 기회를 마련해 창작자의 예술 활동을 돋는 환기미술관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프리’는 ‘상’을 뜻하는 불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작가와의 만남이에요. 작업실을 자주 찾아갑니다. 그래야 배울 것이 많아요. 작업실에는 작가의 작품과 일상, 예술정신이 가감 없이 담겨 있거든요. 작품 활동 못지않게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발표 활동이에요. 발표 기회가 없다고 하면 청년 작가를 떠올리지만, 청년은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원로는 원로니까 기회가 있고요. 중년 세대는 정말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 여성 작가는 더 힘들고요. ‘프리 환기’가 인연이 되어 만난 작가는 또 다른 작가끼리 만나서 동료애와 연대의식, 정보 교환 등으로 소통하고 마음의 격려를 받으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예술가는 외로워야 하지만 너무 외로우면 힘들다고. 그러나 외로움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어찌 창작자뿐일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겪고, 소외받는다. 돌봄에서 소외된 아이들, 폭력 피해에 노출된 청소년, 회사나 단체 등 조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른들, 아프고 외로운 노인들… 창작의 고통을 다독이는 일만큼이나 박미정 동창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주목하는 분야가 문화 예술의 사회 나눔이다.

## 예술 나누는 삶을 궁리하다

“예술은 은둔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영혼으로 창작하지만 세상과 만나기 위해 활동하는 거니까요. 예술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문화 예술을 향유하도록 미술관이 기회를 어떻게 만들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동창은 전시, 창작 지원 외에 공공교육기관으로서 미술관의 역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나 학교에서 미술관에 교육을 의뢰해 옵니다. 조직 생활에서의 갈등, 스트레스를 겪는 동료들이 함께 재료를 쟁이고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주무르며 작품을 만드는 동안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신체를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감이 생겨나요. ‘자, 우리 어려움이 있으니 대화합시다!’ 하고 정색하면 대화가 더 안 되잖아요, 예술 체험 활동을 통하면 어색함이나 경직됨 없이 스트레스가 자연스레 풀립니다.”

환기미술관이 시 또는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나 치매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맺어 치매를 겪는 노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트 힐링 프로그램은 호응이 매우 크다. 아트 힐링 프로그램은 2013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알츠하이머 프로젝트에 참여한 환기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심취해서 성실히 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즐거움이었어요. 늘 즐거운 숙제를 받아드는 것처럼 일을 해왔네요. 은퇴 후에 취미로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술 활동 경험을 살려서 창작을 돋거나 예술 향유를 돋는 틈새 활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궁리해 보려고요.”

천상 미술관지기. 미술관을 통해 예술이라는 다리를 놓아온 그는 늘 무겁게 작품을 들고 다리품을 많이 팔아서인지 팔 다리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병원 시간을 맞추느라 미안스레 자리를 뜨며 박미정 동창은 미술관 관람을 권했다. 유난히 파란 하늘 아래, 구비지면서 높이 뻗어나간 노송의 자태를 마주한 여유로운 카페, 투명한 창에 김환기의 육성이 시로 읽혔다.

“선이 가고 오고,/멈추고 흐르고,/곧게 혹은 휘어지게,/서로 뭉쳤다 헤어졌다…./인간의 무연(撫然)한 이 합작에서/나는 놀라운 구성미를 알았고,/회화정신으로 돌아가 보기도 한다./버라이어티한 음악까지 감득(感得)한다./— 김환기, 「선(線)」”

글·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자 이진민(국문 86) 동창의 기사는  
지난 《이화동창》 봄호(150호)에 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달장애아동교육의 개척자이자 선구자 전생애기 발달을 지원하는 센터로 확대 도모

### 1981년 문을 연 국내 대학 최초 발달장애 아동 치료·교육 전문기관

모교 후문 건너편이다.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화당을 지나 파리바게트 옆 골목 한 자락을 돌면 땡기골이 보인다. 상전이 벽해가 되는 세월이 몇 겁이나 흘렀어도 옛 이름이 살아 있어 정겹다. 땡기골을 마주하고 있는 2개 동의 하늬솔 빌딩은 모교 범인 건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부속기관들이 오밀조밀 들어서 있다. B동 2층과 3층에 자리한 이대발달장애아동센터 (Children's Center for Developmental Support, 이하 센터)를 찾았다.

1981년, 일반인들에게는 ‘발달장애’라는 개념조차 낯설던 때 국내 대학 최초의 장애 아동 전문 치료/교육 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언어청각임상센터가 문을 열었다.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과학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각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는 불모지와 다름없던 우리나라 장애 아동 교육 분야의 개척과 성장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언어청각임상센터라는 이름과는 달리 설립 초기부터 언어/청각 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발달장애의 전 영역을 다루어 왔던 센터는 2000년 이화여자대학교 발달장애아동센터로 개명하고, 장애 아동의 치료 및 교육과 연구 활동,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센터는 대내외적으로 영문 이니셜인 EWHA-CCDS(Children's Center for Developmental Support)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장애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이라도 일시적인 발달의 문제를 지녔거나 심리적 문제 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의미

에서다.

현재 센터에서는 김영태(언어병리학과 교수) 소장과 실무 책임자인 김선경(특교 89) 부소장, 40여 명의 석·박사급 연구원 등이 치료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연구원들은 21년차인 김선경 부소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10년 전후의 근속한 경력자로서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센터에서



는 초기 상담을 거쳐 진단이 접수되면 아동에게 맞는 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평가한 후 진단평가협의회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배치한다. 치료와 교육 시 부모 교육 및 상담이 함께 진행되며 교육은 중간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후 종결된다. 종결 후에도 추후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

### 장애 아동 교육 분야의 개척자이자 선구자

센터의 치료·교육은 언어치료, 심리치료, 특수교육, 감각통합치료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언어치료는 말,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으로는 개별 및 집단 언어치료 프로그램과 영유아 아동의 개별 및 집단 부모 교육,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평가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심리치료는 학교나 또래 관계의 부적응, 우울, 무기력증, 주의 집중이 어렵거나 틱, 야뇨증 등의 증상이 있는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치료 프로그램은 놀이치료, 애착 증진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모래놀이 치료, 청소년 상담,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특수교육은 발달 지체 및 발달장애, 학습 부진, 주의 집중 장애, 정서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등으로 특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영아 발달 그룹, 유아 발달 그룹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개별 특수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성 그룹 프로그램, 통학교육지원 그룹 프로그램 등 발달 촉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감각통합치료는 환경 및 의학적 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된 영유아와 자폐증주성 장애, 지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으로는 발달 증진 프로그램, 감각통합 치료 프로그램, 신경발달 치료 프로그램, 소근육 발달 촉진 프로그램, 구강 발달 촉진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초학문적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치료와 교육 실시

센터가 지닌 최대의 강점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심리학과, 언어병리학과(대학원) 등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분화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들과는 달리 센터는 장애 아동과 학부모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각 영역 전문가들이 협력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실제 다양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통합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센터는 우수한 연구 인력과 함께 그동안 축적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타 기관과 구별된다. 센터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및 교육뿐 아니라 장애 아동에 대한 기초 연구, 체계적인 치료 교육을 위한 연구전문서적의 출간, 그리고 전문가 육성과 부모 교육에 힘써 왔다. 특수교육과를 비롯한 관련 학과 학생들이 연구

조교 및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이론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 전문가 교육을 수행한다. 그리고 부모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양육으로 갈등을 겪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요즘은 사설단체,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등 다양한 형태로 발달장애 아동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도 진단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센터 설립 당시만 해도 장애 아동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기관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보니 비용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 센터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뜻이 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고, 특히 선교사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높은 문턱이 낮아진 것은 2011년 정부가 실시한 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도 진단과 치료의 지원이 생기면서부터였다. 센터도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바우처 사업에 동참하면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발달재활치료 서비스, 서울시 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가 그것이다.

센터는 매월 평균적으로 500건 정도의 케이스를 다룬다. 연령대로는 학령 전 아동이 가장 많은데 최근에는 만 2세 전후의 아기들이 많이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발달지체, 자폐증주성 장애, 지적 장애, 언어 장애 등이 많으며, 장애뿐 아니라 장애 위험 영유아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매 사례마다 치료 방법과 기간이 다른데, 단기 치료로도 성과가 있는 사례도 있지만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센터는 이처럼 수많은 사례들을 만나며 아이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통합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장애를 예방하고 일반적인 학교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이대부속초, 명지초 등 주변 사립 초등학교에 상담교사를 파견하여 아이들의 심리 문제를 해결을 돋고 있다. 저학년 때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면 청소년기 이후에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대문 구청과 협력하여 관할 어린이집 아동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만 2세 아동 1,800여 명 전수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나 장애 위험 영아,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영아의 조기 발견에 기여하였다.

### 전문성과 실험 정신으로 더욱 발돋움할 것

지금까지 센터를 이끌어 온 주역들은 초대 운영위원장이었던 황응연 모교 사범대 명예교수, 1대 소장이었던 추국희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14대 현 소장인 언어병리학과 김영

태 교수에 이르는 역대 소장들과 설립부터 궤도에 올릴 때까지 실무를 담당하며 헌신했던 연구원들이다.

김영태 소장은 앞으로 센터가 성장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 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는 서비스의 대상의 확대다. 현재 장애로 진단된 아동 중심에서 ‘위험군’ 아동에 대한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하여 학령기, 나아가 성인기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문적 근거 중심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센터가 이대 부속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모교 특수교육과, 언어병리학과, 심리학과 교수님들과의 공동연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더 나아가 학과 연구진들과 센터의 연구진들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다른 사설기관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선도적 임상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다.

센터는 ‘발달지원센터’로 개명을 고려 중이라 한다. 노령화로 인해 치매, 인지 장애, 언어 장애를 겪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지원의 대상을 아동만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나아가서는 전 생애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다.

‘자녀가 발달에 어려움을 가졌거나 장애로 진단을 받고 문의를 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초기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정기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평일 오전 시간대가 아니라면 1~2년을 기다려야 할 만큼 수요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진단을 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조개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연구진들이다.

‘비록 아이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이곳이 어머님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센터가 되도록 연구원 선생님들은 늘 기도합니다.’ 언제나 아이들의 시선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부모의 마음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경 부소장의 말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 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의 발달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EWHA-CCDS 홈페이지(<http://ccds.ewha.ac.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3277-3268)를 통해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대학 기관 최초로 장애 아동 전문기관으로 치료 교육과 연구에 열정을 쏟고 있는 센터의 발전을 위한 후원과 장학금 기부의 창구도 항상 열려 있다.



감각통합실



발달놀이실



놀이치료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매듭장 김은영(생미 64) 동창

## 매듭을 풀고 매듭을 지으며 아름다움과 지혜를 쌓다



매듭이라는 말이 묘하다. 난마처럼 얹힌 고단한 삶의 과제를 해결할 때 풀어야 할 것이 매듭이라면, 이리저리 벌여 놓은 판을 정리하고 완결하여 갈무리하는 것 또한 매듭이다. 긴 인생길, 매듭을 풀고 매듭을 짓는 과정을 거치며 아름다움과 지혜를 쌓았다. 희수(喜壽, 77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향해 도약해 왔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매듭장 김은영(생미 64) 동창이다. 5월 성북동 간송미술관 내 사저에서 만난 김은영 동창은 모딜리아니의 여인과 같은 곱고 아름다운 자태로 후배를 반가이 맞았다. 김은영 동창은 지난 4월 개관한 성북구 선잠박물관의 기획특별전 ‘비단실의 예술 매듭장 김은영’으로 분주할 뿐더러 불과 한 달여 전 부군 전성우 간송미술관 관장의 소천으로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의 와중에 있었던지라 이번 만남이 더욱 감사했다.

시인 김광균의 딸, 간송 전형필의 며느리, 전 서울대 교수이자 간송미술관장 전성우의 아내… 김은영 동창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한때 그녀에게 빛이었고 또 그림자였다. 그러나 ‘매듭’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온 김은영 동창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 예술 분야에서 온전한 ‘김은영’이라는 이름을 새겼다. 그 누구의 무엇도 아닌 바로 ‘김은영’이다.

### 이대생으로 살아가며 ‘나’를 찾다

김은영 동창은 영문학이나 문학을 전공하려 했다. 그러나 항상 시대를 뛰어넘는 앞선 생각을 지녔던 아버지 김광균 시인은 이대에 실내장식 전공이 생긴다는 기사를 읽고 딸에게 ‘전망이 밝은’ 인테리어를 공부할 것을 권했다. 전망을 읽기에는 다소 이른 1959년의 일이다. 예술대학 안에 있던 미술과와 음악과가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확대되면서 미술대학 내 전공이 신설된 것이다. 김은영 동창이 갑작스레 결정한 미대 진학 준비로 고심하던 때 아버지는 줄리앙 석고상을 하나 사오셨

다. 미술 감각을 타고났던 김은영 동창은 데생 연습에 몰두해 불과 석 달의 준비 끝에 생활미술과에 합격했다. 그해 출범한 미술대학은 회화과, 조각과, 생활미술과, 자수과 등 4개 과로 구성되었다. 실내장식은 생활미술과의 한 전공 분야였기에 별도로 교수가 있지 않았고, 가구사와 디자인 담당 교수가 실내장식 교수를 겸했다. 실내장식에만 한정되지 않았던 이러한 교육 환경은 오히려 김은영 동창에게 약이 되었다. 실내장식뿐 아니라 도안, 색채학, 염색 등을 한 학기씩 배우며 기본적인 미술 교육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에 후에 매듭을 하는 데 귀한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이대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편견 속에서도 ‘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1960년대, 이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시집을 잘 가기 위한 일종의 ‘결혼의 조건’으로 여겨졌다. 함께 입학한 40명의 동급생 중 18명이 중도에 결혼으로 학업을 중단하여 22명만이 졸업했다. 이대 출신은 최고의 며느리였고, 판·검사들에게 최상급 아내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김은영 동창이 실제로 다닌 이대는 여성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 지도자로서의 당당함을 훈련하는 최고의 교육 기관이었다. 김활란·김옥길 총장의 교육은 사회적 리더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큰 가르침을 주었다.

“이대를 선택하기 잘했지요.” 서울대를 가고자 했던 김은영 동창에게 할머니는 ‘여자가 어딜 남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나’며 이대를 강권하셨다. 이대로 이끈 것은 할머니의 편견에 다름없는 전통적 사고였지만 이대로 갔기에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김은영 동창은 과히 활동적인 성격은 아니었다고 겸손해하면서도 학생회장을 맡아 한일협정 당시 반일운



남편 전성우 교수의 희수연. 가족들과 함께

동의 일환으로 이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펼쳤던 경비정 모금에도 앞장섰고(6·3한일협정에 반대하며, 당시 일본 어선으로부터 우리 어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된 평화선 수호를 위해 경비정 마련 기금을 모으자는 운동이다. 2014년 10월 8일자 프레시안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운동을 시작한 건 이화여대 학생들이었다. 이화여대생들은 1964년 3월 26일 평화선 수호를 위한 경비정 모금 운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튿날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결정했다. 전교생 7,000명이 한 달간 미장원 출입을 삼가고 루주를 비롯한 화장을 하지 않는 등의 검소한 생활을 통해 절약한 돈을 모으자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곧 널리 퍼졌다…’) 쌍쌍파티도 주도했다고 회고했다. 조직의 리더가 되어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에 능했던 김은영 동창은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다재다능한 재원이었다.

### 유학을 접고 매듭을 만나다

“아버지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여자도 전공은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그녀는 졸업 후 뉴욕의 프랫 디자인 스

쿨을 목표로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던 그녀에게 갑자기 닥쳤던, 함께 자란 사촌의 죽음은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일로 앞으로 내달리던 삶의 행보를 늦추던 중에 집안에서 혼담이 오갔다. 김은영 동창은 유학의 뜻을 접고 약혼을 했다. 김은영 동창은 그때 《한국 일보》에서 무형문화재 매듭장 지정 기사를 우연히 보았다. 매듭과 조우한 순간이었다. 매듭을 배우기 원하는 그녀에게 약혼자 전성우 교수는 미술사학자 최순우 선생을 통해 전통 매듭 기술을 복원해 낸 김희진 매듭장을 소개해 주었다. 1년 동안 매듭의 기본 과정인 38개의 매듭을 배운 후 김은영 동창은 결혼을 했다. 보수적인 남편과 시댁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딸 둘을 내리 낳았다. 아들에 대한 강박이 적지 않았던 결혼 3년 차, 셋째로 아들을 낳았을 때 모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때마침 김희진 매듭장이 연락을 했다. 김희진 매듭장에게 사사를 받으며 김은영 동창의 매듭 인생이 본격화되었다.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지금도 여성의 결혼을 하고 나면 직장과 출산, 육아 그리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양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진다. 더 구나 한 세대 전이었다. 김은영 동창이 ‘일’을 하기 위해 지켜 온 원칙은 한정된 시간을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었다.



끈목(다회)을 짜는 모습

그녀에게 삶의 1순위는 가정이었다. 가정이 깨지면 그 자신을 존재케 하는 터전이 붕괴되고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화가이자 교수인 남편의 뒷바라지, 네 자녀의 양육, 시어머니 간병 등 1순위를 감당하는 데 대부분의 삶의 에너지가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듭은 ‘그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이었기에 놓을 수 없었다. 작품 구상과 실의 염색, 끈목을 짜고 매듭을 엮는 작품 제작의 전 과정은 대학 때 배운 색채와 염색,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모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이었고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창의적인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서 김은영 동창은 잠을 포기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잠시 중단했다. 주부의 일과가 끝나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작업을 했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전승공예대전과 국전에 출품해 거듭 상을 받았다. 당시 장인들은 현대교육을 받기보다는 도제식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술성 면에서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은 김은영 동창의 작품은 단연 눈길을 끌었다. 전승공예대전에서 국

무총리상까지 받고 더는 출품을 하지 않았다. 계속 수상하는 것이 다른 장인들에게 미안해서다. 1987년, 시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그녀는 서울 여자대학교 공예학과대학원에 진학하여 염색을 전공했다. 항상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텃인지 45세, 늙은 나이의 대학원 공부도 신명나게 해냈다. 늘 책을 읽으라던 아버지도 딸의 만학을 지



대삼작노리개



진주낭 복원품



나비모양 봇걸이 방망이술



궁 소교(가마)

지했다. 석사학위를 마친 후에는 작품 활동뿐 아니라 서울산업대학 등 강단에서 공예사 등을 가르쳤다. 또한 그 바쁜 중에도 이대 미술대학 동창회장과 총동창회 홍보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 매듭장 김은영, 50대 중반에 공인의 삶으로

매듭 작업의 시작은 흰색 비단실이다. 흰 실타래를 곱게 염색한 후 잘 말려 얼레에 감고, 끈틀에 앉혀 끈목을 짠다. 비단실로 올을 교차하며 감아 끈목을 만드는 지난한 과정을 거친 후, 공들여 만든 고혹적인 색상의 끈목을 엮어 좌우와 앞뒤가 대칭되는 형태로 나비, 국화, 매화 등 다양한 모양의 매듭을 맺고 술을 달아 장식을 만든다. 노리개, 주머니 등 여성용 장신구뿐 아니라 안경집, 허리끈 등 남성용 장신구, 그리고 악기, 가마, 각종 생활용구와 궁중기물, 종교 의구 등의 장식에 예로부터 매듭은 폭넓게 사용되었다. 매듭은 기원을 선사시대에서 찾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전승공예다.

매듭을 시작하고 30년 만에 김은영 동창은 처음으로 매듭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에서 김은영 동창은 작가로서 한국 고유의 색을 구현해 냈다. 매듭의 색은 흰색이 섞인 파스텔 색조도 아니고 원색도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은은한 중간색이

었다. 이는 미술계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개인전에서 작품을 눈여겨보았던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정준모 이사장은 김은영 동창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추천했고 이듬해인 1996년, 김은영 동창은 서울시 제13호 무형문화재 매듭장으로 지정되었다. 이로부터 김은영 동창의 삶은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서 공인의 삶으로 전환되었다. 50대 중반이었다. 해마다 전시회를 통해 매듭을 널리 알리는 일과 함께 전통기술을 전승하기 위해 이수생을 양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서울무형문화재 보존회 이사장,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 궁중복식연구회 부회장, 한국민속박물관회 부회장, 각종 심사위원 등 작품 활동 못지않게 전통예술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김은영 동창은 지금까지 조금도 쉴 틈 없이 움직였다. 50~60명의 제자를 키우고, 그 중 30여 명의 현역 작가를 길러 냈으며, 개인전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회원전 등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끊임없이 전시회를 열어 작품을 선보이며 우리 매듭의 예술성을 홍보했다. 브뤼셀 문화원, 바르샤바 문화원, 로마 국립동양예술 박물관, 시애틀 아세아 미술관, 비엔나 민속박물관 등 세계 각지의 미술관에 김은영 동창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은영 동창은 조선의 의궤(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사실을 그림과 문자로 정리한 책)와 궁중진연병풍을 통해 궁중의 저녁 진연에 사용된 등과 왕실에서 사용한 매듭유소, 비단등장식 등 우리 옛 매듭을 고증하여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순조 등극 30주년과 사순 생신을 축하하여 올린 효명세자의 진찬연 기록화에 나온 지당판과 죽간자의 재현은 매듭조교와의 협업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김은영 동창은 이처럼 전통 예술품으로서 매듭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동시에 오늘날의 장신구나 생활 소품에 매듭의 장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자들과 함께 실험하며 연구하고 있다. 김은영 전승매듭연구원에서는 해마다 주머니, 노리개, 실내 장식품 등 ‘주제’가 있는 전시회를 열어 일상 생활용품이나 액세서리 등에 매듭을 접목하여 실생활에서 활용의 폭을 넓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제까지 수많은 전시회를 열었지만 매번의 전시가 다 좋았다는 김은영 동창은 가장 아끼는 작품으로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던 가마를 재현한 궁소교(가마)를 꼽았다. 가마를 장식한 매듭뿐 아니라 목재를 재단하여 가마까지 직접 제작하는 등 2년 가까이 걸려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인터넷 등 과학 기술 발달로 매듭을 세상에 알리는 것보다 손쉬워졌다는 김은영 동창, 최근에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우리 고유의 전통 매듭을 올바로 알린다는 과제도 꼭 해야 할 일 목록에 추가했다.

### 매듭처럼 가정과 일을 지혜롭게 엮다

두 시간이 훌쩍 지났어도 김은영 동창의 반듯한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입술에 머금은 미소도 그대로였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유명 시인의 딸로 태어난 김은영, ‘김은영’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것은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다. 김은영 동창은 단호하게 ‘항상’이라고 답했다. “나는 김광균의 딸, 전성우의 아내였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나는 언제나 나였어요.” 과연 이대 선배다운 답변이다.

끝으로 ‘왜’ 매듭이었나를 물었다. “매듭은 균형과 질서의 도입니다. 하얀 실 한 타래를 갖고 내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작업이지요. 실에 색을 입히고, 올을 수없이 교차하여 끈목을 짜고, 끈목을 반으로 접고 매듭을 내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오직 내 손을 움직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매듭은 정신을 집중해야만 균형 있는 모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산만하면 질서가 깨지게 되지요. 매듭을 통해 어떠한 일을 대해도 차분하게 임할 수 있는 평정심이 길러집니다. 극도의 정신 수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매듭을 맷을 수 없다 한다. 매듭의 철학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김은영 동창은 구도자의 모습에 가까웠다. 혼들림 없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선구자였고, 가정을 세우고 돌보기를 중히 여겨 시간을 쪼개고 나누어 쓰는 지혜로운 삶의 조정자였던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 거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간송미술관 끝에 우뚝 서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의 위용이 김은영 동창의 부드러운 듯 강한 삶의 모습과 빼닮았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모교 소식

##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식 개최

모교는 5월 31일(목) 대강당에서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혜숙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지성의 전당으로서 이화는 지난 과거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대학이 될 것”이라며 도전 정신, 개방성, 유연성, 창의성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의 변곡점에서 이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담당한 것을 상기하며 “이화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이화만의 길을 만들며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화가 족들이 학교의 사명과 역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전 명예총장, 정의숙 전 이사장, 장상·이배용·김선옥 전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우복희 이화학당 이사 등의 내빈과 전·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 주요 기관 기관장 등의 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백석만 부속이화·금란중학교 교사, 김은미 국제학과 교수, 최정일 정보시스템개발팀과장이 30년·20년·10년 근속 교직원 총 100명을 대표해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제14회 이화학술상’ 수상자인 양명수

기독교학과 교수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화학술상’은 모교 교수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통해 학문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수여되는 상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목실장을 역임한 양명수 교수는 인류사상사의 관점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한편 한국 사회의 전통과 특수성을 반영한 신학과 철학의 정립을 탐색해 왔으며, 유럽 및 동아시아 교수들과 공동 학술 교류를 진행하는 등 모교의 연구 역량과 학문적 수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 후에는 총장 초청 오찬이 총장 공관에서 진행됐다. 창립 기념식 참석 귀빈과 이화 후원자



들을 위해 마련된 오찬에는 이화학술상 수상자 양명수 교수의 수상 소감 발표, 학교발전기금 후원

자들에 대한 장명수 이사장의 감사패 증정이 진행됐다.

## ECC 10주년 기념 제17회 김옥길 기념 강좌 및 김옥길 스승 추모예배 개최

모교는 5월 17일(목) ECC 삼성홀에서 ‘제17회 김옥길 기념 강좌’를 개최했다. 올해 강좌는 ‘공감과 동행의 공간’을 주제로 ECC 건축 10주년을 축하하고 이화의 공간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김혜숙 총장은 “이화의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김옥길 선생님의 철학과 뜻을 기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내외 귀빈과 청중을 환영했다.

1부 강연으로 김애령 교수가 ‘꿈꾸는 장소: 실천적 행위로 완성되는 이화 공간의 역사’를 주제로 이화 캠퍼스의 공동체적 역사를 조망했다.

2부 강연으로 ECC 설계자인 도미니크 페로 스위스 로잔연방공대 교수가 ‘Topography – A Groundscape Story’를 주제로 기존 ‘Landscape(풍경)’에 지하(Ground)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도시 공법 ‘Groundscape’를 제시하며 지하 공간의 중요성과 ECC의 건축학적 의미를 조망했다. 페로 교수는 “ECC는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면서 공간을 리모델링한 사례”라며 “ECC는 이화 캠퍼스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조망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외부로 열린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이화 공동체가 상호교류하며 생활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 구성원들 덕분에 ECC가 살아 있는 유기적 공간이자 이화여대의 역사적 장소가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기념 강좌 전날인 5월 16일(수) 중강당에서는 김옥길 선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는 ‘담대한 사랑, 김옥길 스승 추모예배’가 열렸다.

김옥길 총장 재임 시절 교목실장을 역임한 서광선 기독교학과 명예교수는 김옥길 선생이 노동운동을 하다 퇴학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구한 사연을 전하며 “선생님의 담대한 사랑의 원천은 이화의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인 신낙균(기독 63) 동창은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약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김옥길 선생의 모습을 기억하며 “외경의 대상인 선생님을 본받고자 하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옥길 선생님의 삶과 리더십’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장정은 교목의 사회로 차옥승(기독 74) 동창, 김은혜(사복 74) 동창, 이미경(영문 73) 동창, 이해성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이한빛(대학원 재학 중) 씨 등 5명이 패널리스트로 나서 김옥길 선생의 제자 사랑과 교육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973년 이화여대 시위 행렬의 선두에 서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등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운동권 학생들을 지킨 김옥길

선생의 담대한 사랑을 회고하는 한편, 참된 지식인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철학,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사랑, 탈위계적인 삶의 태도 등 인생의 멘토로서 선생의 리더십을 기억하고 이화정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김혜숙 총장, 중국 베이징 방문 통해 국제 교류 확대

모교 김혜숙 총장은 5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현지와의 국제 교류를 확대했다. 먼저 5월 3일(목) 송경령기금회를 방문해 왕자루이(王家瑞) 주석과 만나 상호 교류를 논의하고 금년 내 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했다. 송경령기금회는 쑨원의 부인이자 중국 명예주석인 쟁칭령(宋慶齡, 송경령) 여사를 기념하고자 1982년 창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국제우호관계 발전, 세계 평화, 타이완과의 교류, 국가통일 추진, 청소년교육발전, 중국 및 해외 우호단체 교류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저녁에는 SK가 주관하는 ‘2018 베이징포럼’ 개막 전야제 만찬에도 참석했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베이징포럼은 SK가 설립한 장학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베이징 대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포럼이다.

5월 4일(금)에는 베이징 대학교 120주년 창립 기념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대학의 총장들은 물론 미국 하버드·예일·스탠퍼드·시카고 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 일본 도쿄·교토·와세다 대 등 해외 명문 대학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대표단도 참석해 교류를 나눴다.

5월 5일(토)에는 베이징 대 창립 기념 행사의 일

환으로 마련된 ‘세계대학총장포럼 및 2018 베이징포럼’에 참석했다. 200여 명이 초청된 본 행사에서 김혜숙 총장은 ‘대학의 사명(Mission)’ 세션 중 ‘현대 대학 시스템’ 주제의 패널에서 미국 시카고 대 총장, 중국 베이징사범대 총장, 영국 더럼 대 총장 등과 함께 발표했다. 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미래 발전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학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한다”며 “대학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직면한 문제에 맞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갖추고 서로의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청



중의 공감을 얻었다.

5월 6일(일)에는 이화여대 동창회 베이징 지회 임원들을 만났다. 김 총장은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지성’ 비전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전략을

소개하고, 중국 지역 동창들과 창립 132주년을 맞은 이화의 역사 및 정신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모교,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 선정 및 법조인 배출 우수 성과

모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이 ‘2018년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융·복합 시대를 이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창의교육 실천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학과 정제영 교수를 연구 책임자로 하는 모교 연구진은 ‘창의교육 선도 모형 연구·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부문에 지원해 4: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수도권 사범대학 중 유일하게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모교는 창의교육 실현의 허브로서 교원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와 창의교육 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미래 창의 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교는 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자 출신의 신임 재판연구원 및 검사를 다수 배출해 우수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입지를 재차 확인했다. 올해 모교의 법조인 배출 성과는 전국 로스쿨 가운데 재판연구원 공동 3위(4명), 검사 3위(5명)이다.

재판연구원(Law Clerk)은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수료한 자를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시킨 뒤 이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

다. 2018년도 로스쿨 졸업자 중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된 56명 가운데 모교는 나윤미·신은정·이유진·전현진 동창 등 4명을 배출했다. 이는 성균관대,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고려대·아주대·부산대와 동일한 공동 3위이다. 2012년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이래 누적 인용 인원도 성균관대, 서울대에 이어 모교가 3위(37명)이다.

또한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7명 가운데 모교는 김태현·박수영·서지혜·임여은·조예림 동창 등 5명의 검사를 배출해 고려대, 서울대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5명으로 증가하면서 순위도 5위에서 3위로 오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계재

## 공과대학

회장\_ 김미영(컴공 85)

### 공과대학 합창단 창단, 단원 모집

공과대학 동창회는 2018년 3월 공대 합창단을 창단하였다. 컴퓨터공학과 동창들을 중심으로 3월 9일(금) 첫 연습을 시작한 아래 지휘자 강순영(작곡 91) 동창의 지도와 신자연(피아노 09) 동창의 반주에 맞추어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연습에 임하고 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연습하여 5월 26일(토) 컴퓨터공학과 동창회 총회에서 초연하였다. 연주곡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와 <몽계구름>이었으며 당일 참석한 컴퓨터공학과 동창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노래를 좋아하고 함께 노래하기를 원하는 공과대학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동창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컴퓨터공학과 동창회 총회에서 공연 중인 공과대학 합창단

## 음악대학

회장\_ 임진(작곡 72)

### 정기총회에서 음대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음악대학 동창회는 3월 19일(월) 오전 11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신난식(성악 73)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음악대학을 위해 헌신한 정소영(기악 62)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임진 회장은 음대 동창회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모든 동창들이 협력하여 나아가자고 제안하였고, 윤승현 학장은 음악대학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밝은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음악대학 동창회는 4월 7일(토) 12시 아령당에서 열린 총장 초청 오찬에 참석하였다. 음악대학 동창회 회장단과 학장, 여러 동창들이 한자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한 음악대학 동창회

리에 모여 음악대학의 여러 가지 현안을 의논하며 구체적인 일들을 수렴하였다. 앞으로 음악대학 동창회는 빛나는 모교의 비전을 위해 협력하며 나아갈 것이다.



고 이정애 선생님 64주기 추모예배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 간호대학

회장\_ 임경희(간호 80)

### 고 이정애 선생님 64주기 추모예배

4월 25일(수),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간호학부 교수, 동창, 학생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정애 선생의 64주기 추모예배가 열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김미영(간호 84) 간호대학 학장의 고 이정애 선생에 대한 소개 및 이화간호 역사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이

정애 선생은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 후 1928년 하와이로 유학하여 간호학을 전공한 한국인 최초의 간호사로, 1937년 영국에서 개최된 ICN 대회에도 한국 최초로 조선을 대표하는 간호협회 회장으로 공식 참가한 바 있다. 김미영 학장은 고 이정애 선생의 한국 간호의 선구자로서의 공로와 역사적 의의를 전하며, 이화간호의 역사 재정립을 위한 동창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 국어국문학과

회장\_ 남형원(73)

### 4년 만에 열린 동창의 밤 행사

5월 17일(목) 오후 5시 30분 학동역 파티오나인에서 4년 만에 ‘국어국문학과 동창의 밤’ 행사가 열렸다. 비가 한여름 장마처럼 내리는 굳은 날씨

였지만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11기(1960년 졸업) 동창들이 폭우를 뚫고 일곱 명이나 참석하여 끝까지 함께하며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 밖에 24회(1973년 졸), 25회(1974년 졸), 28회(1977년 졸), 29회(1978년 졸), 30회(1979년 졸), 32회(1981년 졸), 35회(1984년 졸), 38회(1987년 졸), 39회(1988년 졸), 41회(1990년 졸) 동창이 함께해



동창의 밤 행사에 참석한 국문과 동창들

주었다. 동창회를 위해 30년 동안 수고해 준 사무국장 안성희(88) 동창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환갑을 맞은 동창들을 축하하는 자리도 가졌다. 2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기발랄한 학생들이 나와 다양한 노래와 춤을 선보여 흥을 돋우었고, 동창들도 노래와 춤으로 다양한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함께 손을 잡고 합창을 하고 단체 사진을 찍은 뒤, 9월 가을 나들이를 기약하며 아쉬운 자리를 마무리했다.

## 불어불문학과

회장\_\_ 배혜화(77)

### 불문과 창립 61주년 총회

불어불문학과 동창 모임 아미회는 불어불문학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 총회를 치른 불문과

과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 4월 18일(수) 필름포럼에서 많은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총장과 불문과 교수 및 은사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고,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은 식사와 영화 관람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독어독문학과

회장\_\_ 이봉무(72)

### 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4월 26일(목) 오후 6시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2회 동창 13명이 충북 진천 등지로부터 참석했으며, 독문과 동창회를 위해 발전기금을 모아 주었다. 베트남으로 기념 여행을 함께 다녀온 2회 동창들은 동창회에서 소회를 피력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27회 동창 박인원(93) 교수가 모교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 독문과에 독일어 원어민 교수로 Jan Creutzenberg 교수가 새로 부임하였으며, Creutzenberg 교수는 4월 독문과 원어 연극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다. 연극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독문과 동창회에서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독문과 2회 동창들

또한 전남대 명예 교수이며 2017년 펜 문학상(소설 부문)을 수상한 1회 서용좌(67) 동창이 뜻깊은 수상 강연을 해주었으며, 1회 동창 5명이 함께 모여 축하해 주었다.

독문과 올해의 이화인으로 22회 동창 이숙(88) 부회장이 선정되었다. 이숙 부회장은 헤드헌터로 일하면서 10여 년 동안 독문과 동창회를 위해 봉사해 오고 있다.

열었다. 봄 답사 사진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선후 배 간의 두터운 정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사학과만이 누릴 수 있는 고적 답사의 경험은 사학을 전공한 동창 모두에게 학생 시절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답사라는 공통 분모가 동창들에게 더욱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전공자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 사학과

회장\_\_한상혜(73)

### 철원으로 봄 정기 답사

3월 22일(목) 사학과 동창회는 서울 원서동 용수산에서 간사회를 열고, 간사회의 여러 활동 보고와 함께 봄 답사지 선정 등을 논의했다.

한편 4월 26일(목) 강원도 철원으로 봄 정기 답사를 다녀왔다. 도피안사, 고석정, 노동당사 등을 답사하고 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궁예궁궐터를 바라보면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파란만장한 흐름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5월 24일(목)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간사회를



봄 정기 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들

## 사회학과

회장\_\_오숙영(77)

### 회장단 유임과 새 고문단 조직

사회학과 동창회는 오숙영 현 19대 회장을 연임하여 제20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임기는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 2년이다. 부회장 김모란(78) 동창, 총무 엄명숙(83) 동창, 회계 이재완(84) 동창도 유임되었다.

새 고문단으로 공정자(62)·김영복(63)·김양경(65)·표경희(66)·양옥남(67)·백직자(68)·박춘호(70)·이근원(71)·윤명근(72)·최영희(73)·김금래(75) 동창이 수고하게 되었다. 사회학과 동창 모임은 격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새 고문단을 꾸린 사회학과 동창들

## 컴퓨터공학과

회장\_\_이주희(87)

### 동창회 친선 골프대회

컴퓨터공학과 동창회 친선 골프대회가 4월 13일(금) 경기도 파주 서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동창들은 이상호 교수와 박승수 명예교수를 게스트로 초대하고 총 6개조를 편성하여 플레이하였다. 메달리스트는 이상호 교수, 2등은 조호경(87) 동창, 3등은 하경원(85) 동창, 통기스트는 김정아(85) 동창이 수상하였다. 대회 후 동창들의 마음을 모아 컴퓨터공학과 동창회에 후원금을 기탁하여 든든한 동창 사랑을 보여 주었다.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한 컴퓨터공학과 동창들

5월 26일(토) 모교 신공학관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자연과학대학 전자계산학과로 출발한 컴퓨터공학과는 현재 공과대학의 맏이 학과로 현재까지 총 2,254명의 동창을 배출하였다. 이기호 명예교수의 격려사와 조동섭 교수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동창회에서는 4월 개최된 동창회 골프대회 소식과 컴퓨터공학과 중심으로 창단된 공과대학 합창단 소식을 전하고, 공과대학 합창단원들이 공연을 하는 순서

도 덧붙였다. 올해 3월 모교 컴퓨터공학과에 교수로 부임한 오유란(10) 동창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 동양화과

회장\_\_박정란(86)

### 제37회 채연전 개최

동양화과 동문전인 채연전이 ‘상상樂도’라는 주제로 4월 10일(화)부터 15일(일)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총 88명의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원문자·김보희·오숙환 명예교수와 동양화과 선배들은 서로의 작품을 선보이고 격려하였다. 현직 교수인 이종목·이기영 교수 및 동창인 서은애(93)·강서경(00) 교수와 강애란 학장, 김연정 부학장, 녹미회에서 함께 축하한 성대한 전시였다. 동문전에 출품한 작품 중 두 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제37회 채연상은 이미연(76)·이숙진(85) 동창이 수상하였다.

5월 10일(목) 연희동 거북이집에서 원문자·오용길 명예교수, 이종목·이기영·서은애·강서경 교수 등 전·현직 교수들을 모시고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은 새 임원진 소개와 함께 올해 동창회 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9일(화)부터 6월 3일(일)까지 창립 132주년 기념 예술 행사인 이화아트페어 2018이 20여 명의 동창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한편, 조형예술대학 A동 2층에서는 3학년 재학생들의 작품 발표회인 메이데이전이 개최되어 오픈식에 참석하였다. 동창회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의미에서 재학생 후배들 전체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31일(목) 동창의 날 행사에서 추대하는 올해의 이화인에 이미정(88) 동창이 선정되었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미정 동창은 1세대 한국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상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동창의 날 합창제에 30명의 조형대 단원이 참가했는데, 동양화과 동창 중에서는 김현주(86)·박정란(86)·임미혁(86)·이혜정(91) 동창이 참여하여 동창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다. 2017년도 우수 졸업 작품 초대전인 비전 이화미술인전에 김한비(18) 동창이 선정되어 각 과에서 선정된 우수 졸업인들과 함께 3월 3일(토)부터 17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작품전을 개최하였다.



최구자 동창의 작업실을 방문한 서양화과 동창들

하는 행사이다. 첫 방문으로 3월 11일(일) 북정마을에 위치한 박신숙(87) 동창의 작업실을 찾았고, 두 번째 방문으로 4월 25일(수) 최구자(65) 동창의 작업 공간을 찾았다.



제37회 채연전을 개최한 동양화과 동창회

## 서양화과

회장\_\_조기련(83)

### 서양화과 동창 오픈 스튜디오

서양화과 동창 오픈 스튜디오는 서양화과 졸업생들의 친목과 작업에 대한 열의를 나누고자 진행되는 활동으로 매월 한 동창의 작업실을 탐방

## 조소과

회장\_\_나진숙(84)

### 다양한 전시회 소식

2018년 봄에도 조소과 동창회에는 많은 선후배들의 다양한 전시 소식이 전해졌다. 나진숙 회장은 3월 13일(화)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린 비전 이화미술인전에 참석하여 조소과 이현오 학생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5월 29일(화)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린 이화아트페어에 조소과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며 성공적인 이화동창 행사에 마음을 모았다. 이화아트페어 2018에는 심부섭(76)·고혜숙(77)·신은숙(79)·나진숙(84)·조미연(84)·김양선(94)·조은희(94)·백인정(96)·이지은(97) 동창이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환기미술관 관장 박미정(84) 동창이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조소과의



원인종 교수의 문신조각상 수상초대전

명예를 빛냈다는 점이다. 더불어 조소과 원인종 교수가 문신조각상 수상초대전을 개최하여 조소과 동창회가 함께 축하했고, 이 밖에도 많은 동창들의 국내외 영향력 있는 전시가 개최되었다.

## 장식미술과(공간)

회장 \_\_ 정경선(82)

### 동창회에 80여 명 참석

5월 11일(금) 오후 6시 이삼봉홀에서 동창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식미술학과 공간디자인전공 1기에서 47기까지의 동창 약 80명이 참석하였으며, 플루트 연주와 남성 3중창 공연 등 다



이삼봉홀에서 동창회를 개최한 장식미술과 공간디자인전공 동창들

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정경선 동창회장은 2017년도 우수 졸업작품 초대전인 비전 이화미술인전에 참여한 13학번 오지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 무용학과

회장 \_\_ 윤덕경(76)

### ‘동창의 날’ 기념 무용과 동창 모임

5월 31일(목) 중식당 케세이호에서 동창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무용과 동창회에서 주관하는 2기(1968년 졸업)와 22기(1988년 졸업) 졸업생 상봉의 날이었으며, 올해의 이화인 축하 및 세계여행 작가 노미경 씨의 특강이 있었다.



케세이호에서 열린 무용과 동창회 모임

## 유아교육과

회장 \_\_ 유청옥(88)

### 스승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해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동창회는 5월 12일(토)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퇴직 은사와 현직 교수들을 초대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졸업 30주년을 맞이하는 1988년 졸업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치른 유아교육과

동창들을 비롯하여 전·현직 동창회 임원과 유아 교육, 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이 참석하였고 은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스승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1부는 박희경(89) 부회장의 사회와 안영주(88)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유정옥 회장의 감사 인사, 선물 증정 및 축하 케이크 커팅, 스승의 은혜 합창으로 진행되었다. 이정환·이은화·이기숙 은사가 덕담을, 현직 교수를 대표하여 김희진 교수가 자리를 마련한 동창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화기애애한 담소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피아노 5중주단 ‘클레프아츠(Clef Arts)’를 초청하여 영화음악을 감상하는 작은 음악회도 열었다. 연주의 마지막 곡으로 동요 작곡자인 김진영(90) 동창이 하나님과 부모,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유아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다짐을 담아 작곡한 동요 <감사해요>를 합창하여 감동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념식 및 음악회’가 5월 12일(토) ECC 이삼봉홀에서 졸업생 및 재학생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부 기념식, 2부 음악회, 3부 포토타임, 4부 만찬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국제사무학과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선후배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학과 발전과 비상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JTBC골프 아나운서 장새별(08) 동창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숙자(80) 동창의 오프닝 공연(북춤), 장윤재 교목실장의 기도, 송유경 동창회장의 환영사, 정문종 대외부총장의 축사, 최애경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아울러 국제사무학과 연혁 소개 및 재학생 영상, 50주년 축하영상이 상영됐으며, 1기 졸업생인 박해정(72) 동창이 자신의 대학 생활을 회상하는 글을 낭독해 초창기 졸업생들의 공감과 후배 재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2부 음악회는 한국씨티 은행 행장실 수석 정덕임(94) 동창의 사회로, 경영학과 연합동아리 향영(向營)에 소속된 ‘세노향(세상을 노래하는 향영)’의 합창, 국제사무학과 성경 공부 동아리 ‘마라나타’의 중창, 초대 가수 장덕철 씨의 미니 콘서트, 국제사무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댄스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동창회에서 송유경 회장은 발전기금(2억 260만 원)을 전달하며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

## 국제사무학과

회장 송유경(85)

## 국제사무학과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설립 50주년 기



학과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국제사무학과

에서 공부하길 바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사무학과는 1968년 설립 이래 국내외 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문비서, 사무관리 전문가, 금융전문가, 대학교수 등 다수의 전문 인력을 배출해 왔다. 국제사무학과 졸업생들은 높은 수준의 직무 열의와 직업 의식은 물론 외국어 능력, 정보관리, 국제회의 기획, 전문사무관리 영역에서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식영과 동창들

### 식품영양학과

회장\_정조인(83)

#### 30주년 동창 대표로 인사말 전해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올해의 이화인에 김주현

(88, 동서대학교 외식조리테크과 교수) 동창이 추대되었다.

또한 5월 31일(목) 열린 이화 창립 132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졸업 30주년 동창대표로 안혜상(88) 동창이 실감나고 재미있게 축사를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가나다순으로 계재

## 지회 소식

### 남가주(LA) 지회

회장\_이보경(생미 80)

#### 지회 각 단체 활발한 활동 벌여

남가주 지회 합창단(단장 안혜숙·간호 74)은 3월 3일(토) ‘세계 기도의 날’ 131주년 기념 행사에서 여섯 단체의 합창단과 함께 친양하고 남미 ‘수리남’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했다. 4월 24일(화)엔

ICSF(International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Focus on Korea Day’에 초청을 받아 세 곡을 공연하고 관중과 함께 〈I Love You, Lord〉를 합창했다. ICSF는 오랫동안 모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선교부(부장 조남화·간호 63)는 매주 기도회를 갖고 현금을 모아 석 달에 한 번씩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으며, 지난 3월엔 캐나다와 네

팔에 있는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냈다.

40~50대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우스베이(회장 최경실·특교 89)는 동창회 허리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금) 모임을 갖고 동창회에 기부금도 냈다.

OC 모임은 3월 24일(토) 기차 여행으로 봄 소풍을 다녀왔다. 자칭 ‘흰 머리 소녀’ 박광순(기독 64) 회장 및 11명의 발랄한 회원들이 칼스바드 꽃밭, 산후양 카피스트라노 미션의 제비 축제 등을 돌아보며 봄 나들이를 즐겼다.

골프부(회장 나은숙·의직 85)는 남가주 3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골프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월 31일(토)엔 서울대 골프대회, 4월 21일(토)엔 연세대 골프대회에 각각 참가했다.

4월 7일(토)에 열린 KSEA(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주관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이화여대 상’을 시상했다. ‘이화여대 상’은 여학생들이 STEM 분야로 나가는 길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1,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학년에서 7학년 중 우수한 성적의 여학생 4명에게 시상할 때 이화여대 이름을 명예롭게 홍보하게 되어 자랑스러웠다. 세미나 강사로 나온 UCLA 의대 교수 전현정(수학 93) 동창은 한국 최초로 여성 고등교육을 시작한 스크랜튼 여자의 사진을 소개했다. 여자가 설립해 132년간 꾸준히 발전시켜온 모교의 정신 유산이 오늘의 자신을 만드는 밑받침이 되었다고 밝히고 여학생들에게 일찍부터 STEM 분야의 길을 선택해 추구할 것을 독려했다. 이날 최혜령(융합보건 81)·정현숙(체육 87) 총무, 최경실(특교 89) 동창 등 임원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대 부스를 지키며



ICSF 초청 ‘Focus on Korea Day’ 공연 중인 남가주 지회 합창단

봉사했다. 힘들었지만 모교의 이름을 알리고 다섯 명의 새 이화가족을 동창회에 새로 등록시키는 성과를 올려 보람이 커졌다.

동창회 기금 모금 사업으로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가 현직 한의사인 남궁봉일(체육 81) 동창의 재능 기부로 열렸다. 이보경 회장 집에서 1~3차 클래스를 인기리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부모님 효도 선물로 만들었다고 하며, 사용한 사람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료비만 제하고 수익금 전액은 동창기금으로 기부하였다.

## 뉴욕 지회

회장\_\_강혜경(영문 83)

### 정기총회 열어 회칙 개정안 인준

새해의 설계와 지난해 동창회를 결산하는 자리인 2017년 정기총회가 2018년 4월 10일(화) 저녁 7시에 맨해튼에서 열렸다. 유덕향(약학 71) 이사장 주최로 열린 이사회를 통해 인준을 받은 강혜경 신임 회장이 이끄는 새 임원진이 2년간의 임기를 맡으며, 2년 동안 봉사해온 박영숙(경영 86) 회

장의 뒤를 잇는 인사를 하였다. ‘Lighting the Future’라는 주제로 뉴욕에서 열렸던 2017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결산하였으며, 이상미(정디 97) 재무의 회계보고를 비롯한 지난해의 뉴욕 지회 전반을 결산하는 자리도 가졌다. 또한 몇 군데의 교정 작업을 마친 회칙 개정안을 인준하는 절차도 거쳤다. 새로 나온 동창을 포함, 40여 명이 모여 선후배 간 정을 돋독히 하며 모교 후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



정기총회를 개최한 뉴욕 지회 동창들



김인성 동창의 집에 모인 라스베이거스 지회 동창들

체 후원 활동의 일환으로 2월에 라스베이거스 재향군인회에서 후원한 한국전쟁 기념비 건설에 이삼희(가정 68) 동창이 1,000달러를 라스베이거스 지회 이름으로 기부를 하였고, 이번 5월에는 불우아동, 결식아동 돋기, 해외선교 등의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GCF(Global Children Foundation)에 500달러를 기부하였다.

대부분의 동창들이 은퇴한 후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한 지회의 성격상 모든 동창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7월 모임에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동창회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 라스베이거스 지회

회장 \_\_ 민순기(사회 70)

### 오찬과 생일 축하 커피 타임

5월 7일(월) 김인성(영문 58) 동창의 집에서 18명의 동창과 12명의 배우자들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고 5월~6월 생일을 맞이한 동창들을 축하하며 케이크와 커피 타임을 가졌다. 커피 타임 후 남정자(간호 61) 동창의 부군인 강위조 박사에게 ‘Well Living and Well Dying’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한편 2018년 결정된 라스베이거스 지역 자선단

## 베이징 지회

회장 \_\_ 김미중(사학 85)

### 모교 총장과 베이징 동창 만남의 자리

5월 6일(일) 베이징 대 120주년 기념 행사 참석 차 베이징을 찾은 모교 김혜숙 총장과 베이징 지회 동창들이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회장 김미중 동창을 비롯 12명의 지회 동창들은 중식당 香浙江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김혜숙 총장과 동창들은 베이징 지회와 모교와의 협력 및 여러 주

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짧지만 알찬 시간을 보냈다.

5월 16일(수)에는 18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모임을 갖고, 모교 총장과의 만남 내용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조향사로 중국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규영(수학 03) 동창의 시향 살롱도 함께 진행돼 동창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998년 7월 발족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베이징 지회는 총 24명의 동창들이 이화라는 이름 아래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5월 총회를 개최하고 신년 및 송년 모임을 비롯 월 1회 정기 모임을 진행해 모교 소식 교류, 동창 친목 강화 및 연대를 통해 동창들의 타지에서의 정착 및 생활에 큰 도움을 나누고 있다.



총회를 열고 동창 간의 우정을 다진 볼티모어 지회

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가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소식을 전하고 많은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홍경주(약학 62) 동창이 현재 재단의 활동 상황을 잘 설명하였으며, 이날 국제재단에 보내는 장학금도 모금하였다.

앞으로 동창 간의 친목을 위하여 문화 행사와 짧은 관광 계획도 세우기로 의논하였다. 기쁨과 즐거움 또는 어려움도 함께 나누자는 동창 간의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모임이었다.



김혜숙 모교 총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 베이징 지회 동창들

## 볼티모어 지회

회장\_\_ 김정현(정외 59)

### 국제재단에 장학금 모금

기후 관계로 봄에 총회를 하기로 정했던 우리 지회는, 2018년도 총회를 5월 5일(토) 한식당 옛집에서 개최하고 21명의 동창들이 모여 반가움을 나

##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_ 곽정연(독문 76)

### 지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

3월 3일(토) 정오 San Jose에 있는 한식당 '산장'에서 46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곽정연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기 보고와 총무 보고 그리고 회계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제26대 회장 선출이 있었으며, 곽정연 회장이 동창들의 만장일치로 연임되었다. 새로 나온 김형일(약학 57)·문영미(불문 89) 동창도 반갑게 맞이하며 모든 동창들에게 화목하고 원활한 정기총

회가 이루어졌다.

4월 7일(토) 정오 Santa Clara에 위치한 한식당 ‘늘봄가든’에서 39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가졌다. 26대 회장으로 연임된 곽정연 회장의 인사말과 새 임원진들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새 임원진으로 부회장 정순진(의직 80) 동창, 총무 이아람(관현 94) 동창, 회계 박숙자(약학 64) 동창, 서기 홍순희(교공 68) 동창이 임명되었다. 신입 동창으로 참석한 조윤주(건축 02)·손선희(건축 02) 동창도 반갑게 맞이하였다. 점심 식사 후 ‘유데 모니아’ 위제국 박사의 ‘초기 암을 피로 검사하는 것’에 대한 강의는 동창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5월 5일(토) 정오, Hillsborough에 있는 곽정연 회장 집에서 26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5월은 가정의 달인 관계로 많은 동창들의 가족 여행 때문에 동창회 참석이 저조하였으나 새로 나온 권영선(경제 00) 동창과 함께 정성스러운 마음이 듬뿍 담긴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어머님의 은혜〉 합창으로 모두 오붓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점심식사 후 이원창 은행 지점장의 ‘미래 부동산’에 관한 유익한 강연을 듣고, 이어 11월에 캐나

다 토론토에서 있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지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동창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_\_최혜영(생미 86)

### 정기 모임을 갖고 새 임원진 선출

5월 29일(화) 중국 음식점 ‘킹도’에서 제63회 정기 모임을 가졌다.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남진우(간호 73) 동창의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다. 모임에는 최경선(영문 61)·이수자(가정 63)·한정자(교육 63)·송경자(약학 65)·정선주(성악 68)·남진우·양혜자(심리 74)·최혜영 동창이 참석했다. 서기인 최길자(화학 65) 동창의 고국 방문으로 서기 보고는 생략하고 이수자 동창이 회계 보고를 하였으며, 모국을 방문 중인 최길자 동창과 여행 중인 선재숙(의학 72) 동창, 귀국한 한정자 동창의 소식을 나누었다. 이어 11월 1일(목)부터 4일(일) 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와 이화국제재단 총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모교 총장, 총동창회장이 참석하는 행사인



3월 정기총회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점심 모임을 가진 세인트루이스 지회 동창들

만큼 세인트루이스 지회에서도 여러 동창들이 참석하기를 독려하였다.

이날 토의 사항으로 뽑은 새 임원진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혜영 동창, 서기 최길자 동창, 회계 이수자 동창, 북미주지회연합회 당연직 이사: 최혜영 동창, 선출 이사: 최경선 · 남진우 동창, 후원이사: 정선주·선재숙 동창.

한편 필라델피아 박물관 큐레이터인 우현수(중문 92) 동창이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하게 되어 지회에서는 우현수 동창 환영 점심 모임을 가졌다. 우 동창은 세인트루이스 'Gateway Korea Foundation'에서 주최하는 '단오 축제 모임'에 Guest Speaker로 초대받았으며, 5월 19일(토) 세인트루이스 박물관에서 '조선시대 병풍'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자세히 소개했다. 우 동창의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보며 동창들은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인들도 흥미롭게 듣고 감상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미국 50개주 박물관에 한국인 큐레이터는 4명뿐인데 그중 한 명이 우리 이화 졸업생이라 참 자랑스러웠다.



장기숙 동창의 팔순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시드니 지회 동창들

앨범과 꽃을 선물로 건네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하며 축하하였고, 장기숙 동창은 감사 메시지와 함께 우주 섭리와 만남, 인연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짧은 강의를 해 주었다.

오랜만에 모인 동창들의 즐거운 만남과 맛있는 음식, 깊은 대화가 이 시간을 더욱 풍부하게 했고, 선후배가 함께 모여 선배의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 기쁜 시간이었다.

## 알래스카 지회

회장 \_ 김명순(간호 62)

## 시드니 지회

회장 \_ 이전희(가관 72)

### 팔순을 맞이한 선배 동창 축하

5월 12일(토) 채스우드 소재 퓨전 한식당인 화이트 테이블에서 최대 인원인 30명의 동창이 함께하는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이번 동창회에서는 이 모임의 최고 선배 장기숙(사회 64) 동창의 팔순을 맞이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이화 동창생들의 모습이 담긴

### 어린이집 오픈하우스 행사 참석

3월 26일(월) Christal Child Development Center 어린이집의 새 건물을 지어 오픈하우스 행사를 한 김수연(커미부 86) 동창을 방문하여 축하해 주었다. 김 동창은 지난 20여 년 육영사업 분야에 몸담아 왔다. 어린이집을 운영한 노하우를 활용해 직접 설계과 건축에 참가하여 결실을 맺었고, 앵커리지 여러 분야에서 축하를 받았다.

실내 1, 2층 모든 벽화는 서울 미대 추상화 전공의 시어머니가 방문하여 꼬박 밤새워 한 달간 수

작업으로 완성했다고 하는데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러 나라 어린이 그림 중에 색동저고리에 다흥치마 입은 한국 어린이 그림이 눈에 띄었는데, 다민족을 아우르며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포진한 알찬 교육의 정성이 보였다.

기존 어린이집은 300명 수용 가능한 상용 건물이었는데, 새 건물이 200명 맞춤형인 것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김 동창과 김 동창 남편의 확고한 운영 철학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가 어느덧 성장해 스스로 일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김 동창의 스토리에 동창들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집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한 알래스카 지회 이유경(교교 89)·백도숙(영문 59)·김수연·김명순·김연순(화학 59)·천규운(사학 81) 동창(왼쪽부터)

## 애틀랜타 지회

회장\_\_김영례(심리 79)

### 동창 선교사와 함께 선교 소식 나눠

3월 11일(일) 애틀랜타 인근 대학에 공부하러 온 동창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환영하는 시간을



4월 모임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가졌다.

4월 8일(일) 모임은 선교의 달 모임으로 37명의 동창이 모여 우리 지회가 지원하고 있는 홍신옥(종음 73, 탄자니아) 선교사의 선교 소식을 나누고, 황성희(유교 74) 목사가 엘살바도르 선교 소식을 전해 주었다. 애틀랜타 지회는 매월 월례 모임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유익한 이화인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 영국 지회

회장\_\_한진경(장미 92)

### 2018년 정기총회와 대영 박물관 투어

4월 26일(목) 저녁에 런던 시내 한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화사한 날씨에 어울리는 봄옷으로 단장한 선후배들이 설레는 맘으로 모임에 참석했다.

정미령(교육 66) 이사의 제안으로 처음 시도하는 이름표 달기에 참석자 모두가 호응하며,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추억 속에서 시종일관 웃음꽃이 물어나는 시간이었다.

한편 이사회에서 건의한 몇 가지 안건은 총회

에 참석한 동창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지회 동창들의 단합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도 이야기 꽂은 끝이 없었으며, 결국 근처의 커피숍으로 모두가 자리를 옮겨 향후 동창회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정기총회를 마무리지었다.

5월 9일(수)에는 대영 박물관 투어를 진행하였다. 오전 11시 10분부터 진행된 투어는 김인성(영문 80) 이사의 맛깔나는 가이드 덕분에 박물관 산책에 참가한 임미송(제약 92)·김보혜(경제 03)·김도형(국문10)·성초롱(한음 10) 동창과 한진경 지회장은 시종일관 감탄을 하며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예정된 두 시간이 훌쩍 지나고서야 다음 기회를 약속하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박물관 투어를 마쳤다.



대영 박물관 투어에 참석한 영국 지회 동창들

## 워싱턴DC 지회

회장\_조은희(경제 91)

### 봄 피크닉, 성황리에 치러

4월 12일(목) 우래옥에서 모임을 갖고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위원회(대표간사 황원



봄 피크닉에 참가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균)에 1,000달러를 건립 기금으로 전달했다. 이 기부는 이사회 기금에서 출연되었다.

5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워싱턴DC 지회 봄 피크닉이 열린 Lake Reston Park Shelter J의 날씨는 단연코 ‘맑음’이었다! 마치 장마철인 양 계속 내리는 Shelter 밖 비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동창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참석해 피크닉 장소를 환한 햇살로 채웠다. 궂은 날씨에도 53명의 이화가족들이 참석하였고, 모든 임원들의 정성스러운 준비가 피크닉 분위기를 따듯하게 만들었다.

이상명(케미부 02) 문화부장의 빙고게임으로 시작된 피크닉은 노란색을 가장 많이 입고 온 사람들을 뽑는 패션쇼로 절정을 이루었고, 맛있는 점심과 준비된 다른 게임들로 참석자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승현(통계 92) 홍보부장의 부군인 이관후 교수의 탁월한 게임 진행이 돋보였다.

이번 피크닉을 위해 많은 동창들이 후원을 해주었는데, 특히 이영주(간호 72) 동창은 참석한 모든 동창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견과류 강정을 개별 포장해 나눠 주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마저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다.

## 전주 지회

회장\_\_이은경(화학 79)

### 지리산 고사리 농장 체험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정규 모임을 해온 전주 지회는 4월 9일(월) ‘번개 모임’을 가졌다. 우리 모임을 축복하는 듯,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날씨였다. 20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지리산 올참 고사리 농장에서 고사리 따기 체험을 하였는데, 손끝에서 느껴지는 싱싱한 생 고사리의 풋풋함에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한 아름씩 따면서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은 산채나물밥집에서 꿀맛 같은 지리산 나물밥을 먹었다. 식사 후 식당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철쭉제가 한창인 운봉 바래봉으로 향하였다. 산봉우리에는 철쭉이 한창이라고 하였지만, 시간 관계로 바래봉 끝자락만 산책해서 철쭉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내려와야 했다.

동창들이 준비한 팥떡, 호박떡, 쑥개떡, 꽃차, 한라봉, 초콜릿 등 넉넉한 간식과 푸짐한 고사리 인심 덕분에 마음까지도 넉넉하고 푸짐한 하루가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랜만에 서로가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까르르 웃으며 마음까지도 행복해지는 하루를 서로에게 선사하였다.



고사리 농장 체험으로 푸짐한 하루를 보낸 전주 지회 동창들

##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_문성애(생미 81)

### 모교 교환학생 격려

3월 28일(수)에는 볼드윈 월러스 대학교 (Baldwin Wallace University)에 교환학생으로 온 김수정·이혜원 모교 재학생과 함께 스트로세 커홀(Strosacker Hall)에서 이화 연례 오찬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동대학 학사 관계학장인 스티븐 스톤 국장과 크리스티 슈르플러 해외 프로그램 디렉터와 관계자들이 함께 참가했다.

매년 계속해오고 있는 이 행사에서, 우리 지회는 학교 측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스톤 국장은 한국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양국의 문화와 학교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두 교환학생들은 지회에서 제공한 장학금으로 미 서부 관광을 하며 미국을 더 잘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4월 28일(토) 클리블랜드 다운타운에 있는 한국 식당인 코리아 하우스에서 여러 동창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클리블랜드 지회는 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낮에 모임을 가져 왔으나 토요일에 모임을



4월 모임에 참석한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여니 직장이 있는 동창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얼굴들을 볼 수 있는 더욱 더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5월 30일(수) 해물 전문 식당 라이트 하우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아트/디자인 컴플렉스 중 하나인 78가 스튜디오를 찾았다. 여름이라 많은 동창들이 한국을 방문한 관계로 인원은 적었지만 모처럼 갤러리를 방문해서 다양한 미디어의 아트 워크를 감상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홍콩 지회

회장\_정도경(사복 81)

### 오찬을 겸한 동창 모임

5월 10일(목) 12시 홍콩섬에 위치한 ‘서라벌’ 한식당에서 8명의 동창들이 오찬을 겸한 동창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신입 동창이 2명이나 참석해서 선후배 간의 정을 돋독히 하고 모교 사랑을 확인하는 화기애애한 모임이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의 현안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하며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되새기는 엄숙한 시간도 가졌다.



오찬 모임을 가진 홍콩 지회 동창들

오찬 비용은 신입 동창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정도경 회장이 기쁘게 지불했다.

## 휴스턴 지회

회장\_정미선(수교 85)

### 꽃구경과 뮤지엄 투어

3월은 휴스턴의 1년 중 날씨가 가장 쾌적하고 상쾌한 때다. 온갖 들꽃들이 주위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Azalea Trail로 꽃구경을 갔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14명의 동창들이 행복한 만남을 가졌다.

작년까지 4월에는 장학기금 마련 거라지 세일 모임을 하였으나, 장소 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올 해부터는 더 이상 거라지 세일을 하지 않기로 하고 Museum Tour로 대체하였다. 18명의 선후배 동창들은 양영회(조소 93) 동창의 주최 같은 설명과 함께 미술품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모임은 20명의 동창이 참석하였으며, 크리스천 여학생인 강다영·차미현 학생에게 각 1,000달러씩 장학금을 주어 학업을 격려하였다. 휴스턴 지회는 상반기 마지막 모임인 5월 모임을 끝으로 8월 말까지 긴 방학에 들어갔다.



3월 모임에 참석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윤여선(교육 48) 동창**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5월 22일(화)부터 27일(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었다. 전시한 작품은 병풍 4~5작품, 두루마리 6작품, 책으로 옆은 10여 작품 등 윤여선 동창이 1년에 걸쳐 신약성서를 붓글씨로 필사한 것들이다.



윤여선 동창

**이정은(서양 70) 동창**

4월 18일(수)부터 22일(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4월 24일(화)부터 29일(일)까지 봉성갤러리에서 각각 개인전을 열었다.

**양수화(종음 71) 동창**

양수화 동창이 단장으로 있는 글로리아오페라단은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및 글로리아오페라단 창단 27주년을 기념하여 5월 25일(금)부터 27일(일)

까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하였다. <라 트라비아타>는 1948년 한국에서 첫선을 보인 오페라이다.



양수화 동창

**김숙희(불문 76) 동창**

4월 23일(월) 서울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린 제28회 이해랑연극상 시상식에서 김숙희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 한국본부가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김숙희 동창

**강순열(가관 77) 동창**

영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강순열 동창은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초대로 이탈리아 작가들



강순열 동창

**이대동창문인회 신임 회장 이정자(기독 66) 동창**

3월 16일(금)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이대동창문인회 제32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나영균(영문 49)·안혜초(영문 65)·김선주(불문 65) 고문과 많은 동창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 전 열린 이사회에서 이정자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동창은 시조시인과 한영시조번역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새로 꾸려진 제25대 집행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이정자 동창

과 함께하는 ‘Walking on the White Side(백로산책)’ 전시회에 4월 26일(목)부터 5월 30일(수)까지 참석하였다.

**김순화·문해란·박정선·신길자·엄대자·오구미·오혜숙·이귀용·임동란(이상 의학 78) 동창**  
모교 의과대학 제27회 졸업생 9명이 졸업 40주년을 기념하며 3월 30일(금)부터 4월 2일(월)까지 모교 ECC 대산갤러리에서 ‘구인구색전(九人九色展)’을 열었다. 김순화(김순화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동창의 크로키, 문해란(SLSBio 회장) 동창의 지점토·도자기, 박정선(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 동창의 수채화, 신길자(이대목동병원 심장내과 교수) 동창의 자수, 엄대자(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동창의 서예, 오구미(시카고 로욜라대학병원 교수) 동창의 보태니컬 아트, 오혜숙(의정부 오혜숙산부인과 원장) 동창의 사진, 이귀용(이대목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동창의 수채화, 임동란(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원장) 동창의 유화 등 동창들이 평소 같고 닦은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정자(조소 66)·김영란(조소 79)·김희경(조소 79)·정수안(조소 84)·이정미(조소 85)·이현숙(조소 85)·최승애(조소 85)·김정연(조소 89)·이정원(조소 89)·지연신(조소 89)·오정선(조소 96) 동창**

5월 12일(토)부터 20일(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전관 및 야외광장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8에 참여하였다.

**황지선(조소 74)·김영란(조소 79)·이선희(조소 81)·나진숙(조소 84)·지연신(조소 89)·장선아(조소 90)·김연(조소 91)·김양선(조소 94)·안경하(조소 99)·김순임(조소 02) 동창**

5월 17일(목)부터 30일(수)까지 한벽원미술관에서 개최된 이천조각가협회(회장 김영란)와 이화조각회의 동행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 김희경(조소 79) 동창

4월 28일(토)부터 5월 30일(수)까지 독일 Galerie Uhn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5월 3일(목)부터 6월 17일(일)까지 열린 해운미술관 기획전 ‘비인간적인 너무나 비-인간적인’ 전에 참여하였다. 김희경 동창은 현재 한국조각가협회 부이사장 및 수원대 미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희경 동창

### 조기주(서양 79) 동창

5월 31일(목)부터 6월 13일(수)까지 14일간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오에서 제30회 개인전 ‘The Stains of Life-2018’을 열었다. 단국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기주 동창의 이번 개인전은 2008년부터 진행해온 ‘The Stains of Life’ 시리즈의 연장선이다.



조기주 동창

### 한인옥(식영 79) 동창

한인옥 동창은 한국음식연구원장으로, 전주에서 (주)한인옥 김치(체험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김치 연구와 교육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2월 21일(수)에는 전북 사회적기업협의회 총회에서 시장상을 받았고, 3월 29일(목)부터 4월 4일(수)까지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식기 디자인 전시회를 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가졌다.



한인옥 동창

### 김미경(무용 81) 동창

무용과 동창회 부회장이자 혜원여고 교사인 김미경 동창이 5월 19일(토) 제46회 ‘혜원 체육의 날’ 행사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했다.



김미경 동창

### 박승희(교육 81) 동창

모교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승희 동창이 5월 26일(토)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박승희 동창

### 음은경(조소 82) 동창

영국에서 활동 중인 음은경 동창이 영국의 Kingston Museum에서 5월 4일(금)부터 7월 7일(월) 까지 Selection을 거쳐 선정된 23명의 영국 작가와 함께 ‘My Muybridg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Inspired by the Work of Eadweard Muybridge’ 전시회를 하였다. 또한 5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런던 OXO 타워에서 ‘Butterfly Effect, 2018 Voices of Korean Contemporary Artists’ 전시회를 열었다.



음은경 동창

### 염선행(생미 83) 동창

4월 7일(토)부터 28일(토)까지 진주시 정촌면 소재 꽃골갤러리에서 ‘바람이 머문 숲’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약 45점의 유화를 선보였다. 또한 4월 17일(화)부터 28일(토)까지 진주시 문희정 아트홀에서 ‘그림이 된 기억’이라는 주제로



염선행 동창

30점의 그림·사진 초대전을 가졌다.

### 성선옥(동양 84) 동창

11번째 개인전이 ‘시선’이라는 주제로 4월 2일(일)부터 6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성선옥 동창

### 박인옥(서양 85) 동창

5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스페이스에서 16회 개인전 ‘희망의 새 물결, 평화의 비둘기’ 전을 열었다.



박인옥 동창

### 안은미(무용 85) 동창

현대무용가이자 안은미컴퍼니 예술감독인 안은미 동창이 동양인 최초로 프랑스 파리의 유명 극장 ‘페아트르 드 라 빌(Theâtre de la Ville)’의 상주예술가(Associated Artist)로 선정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공동제작 등 협력 예술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공동제작 작품 <안은미의 북한춤>을 6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렸다.

### 장희정(간호 85) 동창

3월 30일(금)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강원도간호사회 제35회 대의원총회에서 장희정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장 동창은 한림대 간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정은숙(정외 85) 동창

출판사 마음산책 대표 정은숙 동창이 ‘2018 책의 해’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책의 해’는 출판

계가 주도해 선포한 행사로 1993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정부 주도로 두 번째 ‘책의 해’를 선포했다.



정은숙 동창

### 조기숙(무용 85) 동창

모교 무용과 교수 조기숙 동창이 이끄는 ‘조기숙 뉴발레단’이 6월 5일(화) 저녁 8시 모교 ECC 삼성홀에서 신작 발레를 선보였다. 2004년 조 동창이 창단한 조기숙 뉴발레단은 지난 13년간 17편의 신작을 창작 공연해 왔다.



조기숙 동창

### 남연숙(도예 86) 동창

3월에 괌 여성의 달을 맞이하여 제13회 괌 여성 단체에서 주최하는 아트 전시회가 괌 Nissan Infiniti Art Gallery에서 열려 남 동창이 참여하였다. 또한 6월에 Guam Council of the Arts and Humanities Agency(CAHA) 미술 및 인문학 협회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Moving Colors, Series 4’는 자모로 해경화를 주제로 한 합동 전시회로 한국 현대미술가 안창석 씨의 혼합매체 예술작품과 함께 선보였다.



남연숙 동창

### 변해정(서양 86) 동창

4월 4일(수)부터 14일(토)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바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임인선(무용 86) 동창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이사장이자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 임인선 동창이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을 5월 24일(목) 오후 7시 대림대 아트홀에

서 무대에 올렸다.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2007년 창단한 국내 최초의 발달 장애인 무용단이다.



임인선 동창

### 채림(불문 86) 동창

뉴욕 Pier 94에서 5월 3일(목)부터 6일(금)까지 열리는, 컨템퍼러리에서 모던 아트까지를 아우르는 Art NY Fair에 참여하는 주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채림 동창

### 박신숙(서양 87) 동창

3월 2일(금)부터 31일(토)까지 서울 영등포구 아트윌갤러리에서, 3월 6일(화)부터 17일(토)까지 갤러리 파비온드에서 각각 전시회를 열었다.



박신숙 동창

### 서영임(서양 87) 동창

5월 3일(목)부터 21일(월)까지 서울시교육청연수원 세티미래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 김영주(의학 88)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영주 동창이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공익적 질병 극복 분야의 저출산 대응 기술 과제에 선정됐다. 김동창은 향후 3년간 매년 3억 원



김영주 동창

씩 총 9억 원의 연구비를 수혜받게 된다. 조산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영주 동창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세계조산학회의 대표로 2018년 임명되어 활동 중이며, 최근 중국 광저우

에서 진행된 세계조산학회에서 세계조산학회 이사로 선임되어 향후 1년간 활동한다.

### 윤선흥(동양 88) 동창

'내게로 온 봄'이라는 주제로 5월 9일(수)부터 14일(월)까지 인사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윤선흥 동창

### 이예선(장미 88) 동창

5월 20일(일)부터 6월 30일(토)까지 고흥연홍미술관에서 '쌀'을 소재로 한 '밥알이 살아 있다' 전을 선보였다. 이예선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밥알을 이용해 만든 '밥알이 살아 있다' 연작 등 35점을 출품했다. 이 동창은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은상, 대한민국 회화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 김이경(무용 89) 동창

5월 4일(금)부터 8일(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9회 서울모던아트쇼 2018에 참여하여, '화양연화'를 주제로 한 민화 전시회를 열었다. 김이경 동창은 서울과기대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에서 IT, 미디어융합과 전시기술 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박가나 동창

### 박가나(서양 89) 동창

4월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력, 무역촉진, 기술교류, 공동발전 등의 원칙을 기본으로 실질적인 합작을 이끌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혜정 동창

### 허윤희(서양 91) 동창

4월 21일(토)부터 5월 20일(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갤러리 디스위켄드룸에서 '나뭇잎 일기 특별 기획전'을 열었다. 작년 1월 1일부터 그린 430여 점의 나뭇잎 그림을 전시하고, 푸른색이 갈색을 거쳐 다시 푸른색이 되어 가는 나뭇잎의 시간을 담은 전시이다. 21일(토)에는 에세이집『나뭇잎 일기』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었다.

### 이해련(장미 92)·이해정(서양 93) 동창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H.아트브릿지에서 4월 11일(수)부터 30일(월)까지 2인전을 열었다. 자매이자 모교 동창인 이해련·이해정 동창은 국내 보태니컬 아트 분야의 주축으로 활동 중이며 각각 한국 보태니컬 작가협회의 회장과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해련·이해정 동창

### 이희준(약학 92) 동창

서강대 교수이자 극작가인 이희준 동창이 극본을 쓴 작품들이 다수 무대에 올랐다. 뮤지컬 <최후진술>은 충무아트센터소극장 블루에서 2017년 12월 10일(일)부터 2018년 2월 25일(일)까지 공연되었다.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는 아트원씨어터 제1관에서 3월 23일(금)부터 7월 15일(일)까지 공연되며, 뮤지컬 <미인>은 6월 15일(금)부터 7월



이희준 동창

### 이혜정(동양 91) 동창

오트리스아이디와 미우경영원 대표 이혜정 동창이 4월 13일(금) 송도 웨이하이관에서 중국 위해시 정부 주한국대표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 산업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협

22일(일)까지 홍대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 김윤경(조소 93) 동창

3월 10일(토)부터 4월 1일(일)까지 영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윤경 동창

**이유미(조소 93)·장은경(회화·판화 07) 동창**  
3월 14일(수)부터 4월 22일(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지역네트워크교류전 2018 이상동몽(異床同夢)’ 전에 참여하였다. 이유미 동창은 제주로 이주한 작가로 아트페어와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에 다수 참여하였으며, 장은경 동창은 제주현대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이다.

### 조은희(조소 94)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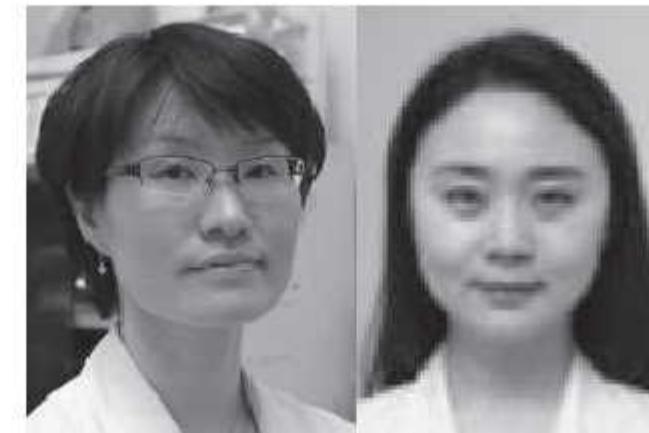
4월 3일(화)부터 29일(일)까지 대구 SoNaMoo Gallery에서 개관초대전 ‘HOPE’를 개최하였다. 또한 5월 5일(토)부터 9월 30일(일)까지 바우지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조은희 동창

### 이진화(의학 95)·김민혜(의학 05) 동창

이진화·김민혜 동창이 최근 개최된 에어웨이 비스타 2018(Airway Vista 2018) 국제학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인 이진화 동창은 호흡기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전문가이며, 이대목동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민혜 동창은 알레르기 및 천식 전문가이다.



이진화·김민혜 동창

### 송혜영(피아노 96) 동창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 중인 콘서트 피아니스트 송혜영 동창은 2월 15일(목) 사우스캐롤라이나 어스킨 컬리지 초청으로 피아니스트 에이미 거스탐슨과 함께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부제의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가졌다. 한편 4월 21일(토) 미국 텍사스 웨더포드 컬리지 알케 연주홀에서 포트워스 심포니와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송혜영 동창

### 김윤덕(정외 92)·조남주(사회 01)·김나나(사회 02) 동창, 제18회 이화언론인상 수상

모교 출신 언론인의 모임인 이화언론인클럽은 제18회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조선일보 문화1부장 김윤덕 동창, 작가 조남주 동창, KBS 기자 김나나 동창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5월 2일(수) 모교 총장 공관에서 ‘이화언론인클럽 정기총회’와 함께 열렸다.



김윤덕 동창

조남주 동창

김나나 동창

협연하여,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 콩쿨의 심사위원장이자 지휘자 존 지오다노와 현지 청중들로부터 큰 호평과 갈채를 받았다.

### 이남준(의학 96) 동창

서울대 교수 이남준 동창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미국 스탠포드 대 의과대학에서 안식년 연수 중이다.



이남준 동창

### 권오신(서양 98) 동창

5월 15일(화)부터 21일(월)까지 서울 중구 서진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권오신 동창

### 이경희(동양 98) 동창

경기도 양평군 소재 갤러리 수수에서 ‘Daylight’라는 주제로 4월 23일(월)부터 7월 23일(월)까지 개인전을 연다.



이경희 동창

### 정승희(서양 98) 동창

정승희 동창이 대표로 있는 도잉아트가 개관 첫 전시로 ‘다시, 봄’ 전을 3월 5일(월)부터 25일(일)까지 열었다. 한편 3월 10일(토)에는 음악가, 작곡가, 무용가, 연기자가 협연한 오프닝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이사라(의학 99)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사라 동창이 우리나라 최초로 골반장기탈출증 로봇 수술(로봇천골질고정술) 100례를 돌파했다. 이 동창은 2015년 3월 세계 최초로 싱글사이트 로봇



이사라 동창

천골질고정술을 성공한 후 올해 5월까지 109명의 환자를 집도하였다.

### 이윤정(피아노 99) 동창

전주기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윤정 동창은 지난 5월 13일(일) KBS아트홀에서 듀오피아노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6월 16일(토)에는 문화 공간 ‘이룸’을 개관하고, 7월 7일(토)에 듀오피아노연주회를 열었다.



이윤정 동창

### 강서경(동양 00) 동창

4월 27일(금)부터 8월 12일(일)까지 필라델피아 현대미술관에서 ‘Black Mat Oriole’라는 주제로 초대 개인전이 진행 중이다.



강서경 동창

### 김민정(컴공 00)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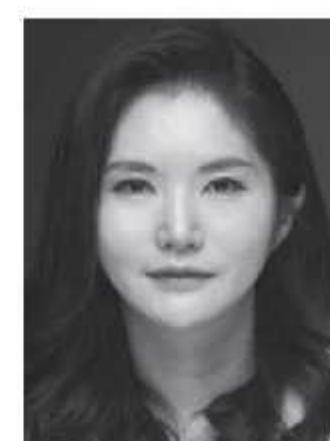
모교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민정 동창이 2018년 5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Greensboro, Dept. of Computer Science 정년트랙 교수로 임용되었다.



김민정 동창

### 김보람(영문 00) 동창

김보람 동창이 『뉴스메이커』 선정 ‘2018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여성법조인부문에 선정됐다. 김보람 동창은 사법연수원 37기 출신으로 삼성그룹,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및 법무법인 평원(서울)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보람 동창

### 이문정(동양 00) 동창

이문정 동창이 운영하는 컨템포리리 미술연구소에서 『평론과 대화』라는 제목으로 첫 책을 출간하였다.

### 최현정(관현 00) 동창

최현정 동창이 대표로 기획하고 있는 더 뉴 바로크 컴퍼니의 2018년 프로젝트 공연 <돈키호테: 바로크 그리고 오늘>이 서울 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부문에 선정되었다. 더 뉴 바로크 컴퍼니는 원전 악기로 고(古) 음악을 다른 학문 또는 예술 장르와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인 예술무대를 매해 창출하는 프로젝트 양상을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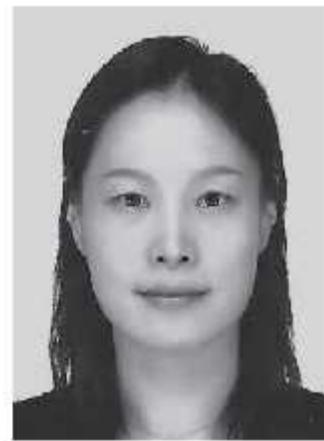
최현정 동창

### 권민진(동양 01) 동창

스페이스 갤러리에서 3월 19일(월)부터 31일(토)까지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 양세정(전자공학 01) 동창

양세정 동창이 3월 1일(목)자로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의공학부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았다. 전공은 바이오의료영상처리이며, 주 관심분야는 피부 질환 자동 진단 및 방사선 수술을 위한 추적 시스템이다.



양세정 동창

### 윤정원(동양 01) 동창

‘Portrait of Nature : Stars and Flowers’라는 주제로, 윤정원 동창이 4월 13일(금)부터 5월 4일(금)까지 아트플레이스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윤정원 동창

### 김순임(조소 02) 동창

3월 23(금)부터 7월 31일(화)까지 밸렌시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으며, 4월 7일(토)부터 26(목)까지 대안미술공간 소나무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순임 동창

### 장유정(조소 02) 동창

3월 10일(토)부터 25일(일)까지 자하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장유정 동창

### 마승연(무용 03) 동창

‘현대무용단-탐 제38회 정기공연’이 6월 2일(토) 오후 8시 모교 ECC 삼성홀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 공연에서는 탐 무용단의 대표이자 무용수,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승연 동창의 작품 <자금, 말하다>가 공연되었다.

### 진민욱(동양 03) 동창

‘상춘지경(常春之景)’이라는 주제로 5월 17일(목)부터 30일(수)까지 갤러리 씨포먼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 정유미(동양 05) 동창

3월 7일(수)부터 19일(월)까지 갤러리팀 2전시장에서 ‘White Silence’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 고미라(법학 06) 동창

고미라 동창이 대전 소재 법률사무소 열음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고 동창은 대전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하고, 법무



고미라 동창

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삼성물산에서 사내변호사 생활도 경험한 11년차 법조인이다.

### 양성원(피아노 06) 동창

5월 24일(목) 오후 7시 20분 노원 어울림극장에서 피아니스트 양성원 동창의 피아노 리사이틀 ‘냉정과 열정 사이’가 열렸다. 양 동창은 2011년부터 피아노 리사이틀 ‘냉정과 열정 사이’를 기획, 음악칼럼니스트 장일범 씨와 함께 전국 투어 연주를 가지며 자신만의 클래식 브랜드를 구축하였다.



양성원 동창

### 이인숙(정보과학대학원 06) 동창

이인숙 동창이 법무부 선정 ‘법무부 2018년 1/4분기 지식행정 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이인숙 동창은 법무부 재직 공무원 중에서 2018년 1월~3월의 기간 동안 선정하는 법무부 지식행정 우수지식인 25명 가운데 122점의 법무지식을 등록함으로써 최다등록 지식인으로 기록되어 본인뿐 아니라 소속 기관에도 성과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인숙 동창은 2017년에도 ‘2017년 법무부 지식활동 우수자’로 선정되기도 하여 업무와 관련된 ‘법무지식행정’에 대한 평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구열을 보여 주고 있다.

### 박자영(한음 07) 동창

경북도립국악단 수석단원 박자영 동창이 첫 음반 <해금, 노래하다>를 발매하였다. 다섯 차례의 해금 독주회를 통해 연주 내공을 쌓아온 박 동창은 이번 음반에서 삶이 스며 있는 우리의 노래를 해금의 다양한 목소리로 연주하였다.



박자영 동창

### 박보오리(조소 09) 동창

6월 15일(금)부터 24일(일)까지 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에서 ‘어제, 군산\_불러오기’ 전을 열었다. 박보오리 동창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드레스덴 조형예술대학에 마이스터슐러로 재학 중이다.

### 허연주(의학 09) 동창

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인 허연주 동창이 최근 개최된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 우수상’을 수상했다. 연구논문은 ‘비만대사수술 후 장내



허연주 동창

미생물총과 세균 유래 나노소포체의 변화에 대한 동물 실험’이다.

### 김민지(피아노 13) 동창

5월 20일(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열었다. 김민지 동창은 지난해 4월 뉴욕 카네기홀 리사이틀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군산대와 제주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김민지 동창

### 김소정(동양 14) 동창

5월 30일(수)부터 6월 5일(화)까지 서진아트스페이스에서 ‘Gazed Ones’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 유영은(의전원 16) 동창

이대목동병원 병리과 전공의 유영은 동창이 4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된 대한세포병리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유 동창의 연구는 방광암의 세포검사의 진단 유용성을 입증한 연구이다.

# 동창이 펴낸 새 책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 내 나이가 어때서 김숙자(생미 64) 동창

김숙자 지음 / 인북스

- 김숙자 동창이 희수를 맞으며 발견한 노년의 삶과 꿈, 그리고 사랑의 기쁨을 엮은 에세이집 『숙자's 스토리 – 내 나이가 어때서』를 펴냈다. 책에는 70편의 수필들과 드로잉, 유화, 수채화 등의 그림 12점을 담았다.



## 왜 교토인가? 이승신(영문 72) 동창

이승신 지음/ 시가

- 문화운동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이승신 동창이 '시로 쓰는 컬쳐 에세이'를 출간했다. 일본 교토에서 만학의 공부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와 교류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바를 기록했다.



## 꿈이 보내온 편지 박지영(박화자·외국어교육-불어 79) 동창

박지영 지음 / 푸른사상

- 시인 박지영 동창의 산문집 『꿈이 보내온 편지』가 '푸른사상 산문선 23'으로 출간되었다. 작가는 시처럼 섬세하고 단아한 언어로 꿈을 기록하고 사색을 펼쳐나간다. 한 편 한 편 읽으면 일상의 휴식이 되는 산문집이다.



## 손길, 흙을 따라 이윤경(도예 79) 동창

이윤경 지음 / 띠움

- 한국 현대 도예 1세대 작가인 조정현의 작품세계와 삶을 회고한 책. 이윤경 동창은 스승인 조정현 교수와 나누었던 대화와 교감을 책에 담았다. 이 동창은 독일과 네델란드 등 유럽에서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다.



## 어느 날 난민 표명희(독문 88) 동창

표명희 지음 / 창비

- 오영수문학상 제22회 수상자인 표명희 동창이 장편소설 『어느 날 난민』을 펴냈다. 저자는 인천공항 근처 난민 캠프를 배경으로 버려진 한국 아이 '민'과 여러 난민들의 사연을 촘촘히 펼쳐 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한다.



##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유은정(의학 96) 동창

유은정 지음/ 규장

-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의 저자 유은정 동창이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 건강 처방을 책으로 펴냈다. 낮은 자존감, 불편한 관계, 불안과 외로움, 중독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성경적인 해결법이 실려 있다.



## 나도 간다! 유럽 직업학교 양소영(정외 97) 동창

양소영 지음 / 꿈결

- 고려대와 성신여대 글로벌전형 입학 사정관을 지냈고 지금은 교육칼럼니스트인 양소영 동창이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유럽의 직업학교를 소개한다. 유럽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 교육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한 책이다.



## 울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 최은경(국문 00) 동창

최은경 지음 / 책엔

- 최은경 동창은 자전소설을 통해 의심, 왕따,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등 자신의 아픔을 내밀하게 고백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걸까?'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소설이다.



# SWITCH TO

## Ready to change

Electric intelligence : eMobility

Mercedes-Benz



모터원

전시장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길 115번길 50 모터원빌딩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09

파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66  
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일로 214번길 6

<http://www.motorone.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충급

GLC 350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동2단), 폭장연비: 9.7km/1L, 고속도로연비: 10.6km/1L, 폐집CO<sub>2</sub> 배출량: 92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물리 상황, 차량 작동 및 절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 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Tel 031-907-7777  
Tel 031-878-3333  
Tel 031-912-9000  
Tel 02-381-9999

서비스센터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길 82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09  
파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66

Tel 031-905-5588  
Tel 031-841-5588  
Tel 031-972-5588

내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231

Tel 031-974-5588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북로 211

Tel 031-977-5700

인증중고차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주)대한민국국위부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정확성과 신뢰로 다가가는 대한민국국위부 의전경호 서비스는 딱딱한 경호에서 벗어나  
좀 더 친근감으로 경호하는 서비스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는 **수**(행). **비**(서). **경**(호) 입니다.

### | M.I.C.E 의전 경호 사업 |

Meeting(기업 회의)	주주총회, 런칭행사 등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비즈니스 관광, 한국문화탐방 의전경호 등
Convention(컨벤션)	국내외 박람회, 국제회의, Forum, Reception 등
Exhibition(전시회)	각종 행사, 콘서트, 주얼리 및 미술품 전시 등

공항영접 / 해외 VIP 영접 / 해외 바이어 영접 / 행사의전 및 기획 / 통역의전 /  
해외 VIP 및 바이어 국내 전 일정 케어 / 행사경호 / 기업행사 / 기업 주주총회 /  
수행비서 / 수행기사 / VIP차량 / 뷰티의전경호 / 토탈케어(수행+비서+경호) /  
해외VIP 비즈니스 통역의전 및 수행경호 서비스 / 세미나 / Reception /  
시설보안 / 해외VIP 한국문화탐방 경호의전 서비스 / 컨벤션 / 웨딩경호

**(주)대한민국국위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251~254호  
TEL. 1544-9722 FAX. 0303-3130-9721 E-mail. thegsg@naver.com

##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 · 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http://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